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겸주간 이장희
편집장 강인숙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583호 1992년 6월 2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역사의 눈으로 되새기는 6·3투쟁의 정의

6·3은 현정권에 대한 내재된 전국민적 분노의 표출

탄압을 이겨낸 단결정신으로 학생회를 강화해야

정권의 교묘한 언론공작으로 왜곡된 6·3투쟁은 본교 학생운동에 커다란 흐름을 바꿔놓았다. 학원안정화대책을 통한 학원의 비민주적 학칙 부활과 대대적인 수배검거로 인한 학생회의 위상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찬 2학기 사업진행과 학생회의 재건은 큰 교훈으로 남고 있다. 이제 6·3투쟁 1주기를 맞아 92년 등투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학기의 총학사업과 그 오류를 점검하고 현 이문·왕산 양캠퍼스의 제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편집자〉

6·3정원식총리서리에 대한 항의시위투쟁(이하 6·3투쟁)이 있은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그 의의를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6·3투쟁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속에서 그 현재적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6·3투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사건이 가져다 준 교훈속에서 그 정신을 계승하며, 현재 외대인들 앞에 놓인 큰 과제인 '학생회 강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3투쟁이 정권의 음모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결합하여 만들어 낸 정치적 사건임을 부정하는 이는 거의 없다. 실제 작년 하반기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3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보다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만들어 낸 사건'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건 당시 정권의 외압과 제도언론의 지나친 왜곡·편파보도에 묻힌 진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혀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6·3투쟁은 작년 강경대씨 타살사건 이후 학생·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으로 더욱 고조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고, 공안통치종식이라는 전국민적 요구에 대해 '내각교체'로 화답해 오는 기만적인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외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내각교체와 이에 이은 김귀정씨의 사망에 분노하면서도 5월말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투쟁을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6월초 정원식 총리서리의 본교방문은 내재된 전국민적 분노를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6·3투쟁의 본질은 그 당시 정세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6·3투쟁은 이와 같이 당시 정세에 근거하여 그 평가를 내울 수 있다. 이와 함께 6·3투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많다. 그것은 6·3투쟁을 계기로 시작된 학원에 대한 탄압과 학생회 와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대인들의 단결된 모습이 보여준 교훈이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 안아야 할 6·3정신인 것이다.

6·3투쟁은 학원과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몰고 왔고, 그 영향은 본교에 있어서 막대한 것이었다. 25명의 본교생이 수배되었고 그중 8명의 학생들이 제적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회 간부였다. 이로 인해 학생회가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와해될 지경에 이른 학생회는 다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유지되고 외대인들은 이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도언론을 통해 왜곡된 6·3사건의 진실을 알려나가기 위한 외대인들의 진지한 노력은 십만부의 속보를 통한 시민선전과, 타대학을 비롯한 지방선전이라는 기동성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배된 학생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통해 그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학생회를 지켜내고 6·3투쟁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외대생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노력한 학생회 간부들의 태도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몸을 피해 다녀야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학생회 간부들은 2학기 사업을 준비하며 학원안정화대책 분쇄와 학생회 강화를 위한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외대생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했다.

이렇듯 전민중적인 분노로 떨쳐 일어나 용기있는 자세로 이에 항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결하여 학생회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외대생들의 모습,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학생회 간부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6·3투쟁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학생회를 강화하는 데 외대인들의 힘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전 외대생들이 통일단결된 노력으로 학생회를 강화하고, 그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부와 학생대중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6·3투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인 것이다.

〈황효순 기자〉

〈알림〉

지난 582호 1면 '직원노조' 관련기사중 '재단이사의 수가 12명으로…' 본교 재단이사의 수는 전체 9명으로 4월 3일 본교 재단 정관의 개정에 따라 '친인척 중 재단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음'으로 고칩니다.

학자의 명확한 방향제시가 주요과제

기층 학우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제주체간의 연대는 가장 기초적 문제

등투를 중심으로 한 1학기 총학생회 사업 점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집행부의 전원사퇴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등투마무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92년 1학기 학사일정이 이제 본격적인 종강준비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총학생회장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일반 학생들의 불만이 급기야 불신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등록금책정에 있어서 후속처리가 미진했던 총학생회에 대한 불만족스런 여론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등투과정에서 여러차례의 노선변경을 가졌다. 기본적으로는 '재단전입금의 확충을 통한 교육재정확보'라는 대명제아래 학내 제반 문제점인 복지 및 교육과정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근본적인 대학발전 방안으로 제시됐던 '장기적인 본교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한차례의 변경을 가졌고, 특히 일반학생들의 대자보를 통한 여론조성은 그동안 총학생회가 여론수렴과정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여왔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일련의 대자보 여론조성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총학생회는 특화된 학원자주화 전문기구인 '외대발전 2천년 위원회'의 구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이 또한 현실적인 여건미비로 인하여 또 한차례의 노선을 변경, 재단 보유토지인 '자곡동으로의 캠퍼스 이전'을 주장했고 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만을 더욱 짙게 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요인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는 점과 사업추진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 및 대재단투쟁에 대한 방법상의 전술을 일반 학생들에게 사전에 교양시키지 못한 오류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련의 26대 총학생회의 사업추진에서 보여줬던 본교 장기발전을 위한 전문기구의 구성과 자곡동으로 양캠퍼스 유사단대의 통합, 이전후 캠퍼스별 독자적인 발전계획 추진 등은 앞으로 들어설 총학생회가 이를 토대로 계속해서 연구작업을 실시해야 할 주요과제로 보여진다.

이렇게 노정되어진 과제들을 통해 다시한번 조명해야할 것으로 26대 총학생회가 단순히 방향성 없이 표류했다기 보다는 시기에 맞게 투쟁노선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문제의 귀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궐선거로 들어서는 27대 총학생회측에서 기존의 학자조직을 그대로 존속시켜, 대학당국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경우도 등투와 관련해서는 대중적인 정리가 상당부분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현재 아프리카어과 학회 '아시문'에 의한 '총학생회의 등투마무리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의 부착과 이에 다른 동조세력의 규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김병철(사회·무역4)군은 "등투의 전개과정 보다는 등록금인상률에 따른 공식적인 총학생회의 대응방안이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라며 "앞으로 '학자백서'발간 등을 통해 일반 학생들에게 이제까지의 진행과정과 이후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백서발간과 아울러 오늘(12일)까지 92년 가합의서에 대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집행계획 및 캠퍼스 발전방안에 대해 서면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오늘 이후 대학당국의 태도는 명확하게 표명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총학생의 새로운 학자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사퇴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학자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으로는 서로간의 연대와 제주체와의 연대를 빼놓을 수 없다. 직원노조의 단체협상에서 나타났듯 '대학발전 추진위원회'구성의 논의에 있어서도 학생측과 직원노조는 이렇다할 논의를 갖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대학당국이 제주체간의 고립화 이후에 협상을 좀더 수월하게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에 일조한 결과만을 가져왔다. 또한 교수와의 연대부분도 공식적인 학사기구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했다. 용인캠퍼스가 이번 등투의 수위를 '학생의 학사행정참여'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음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구체적인 학생회내의 조직미비와 기층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현시기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양쪽 총학생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학자의 명확한 방향제시이다. 이는 기층학생들과의 유리가 불러올 결과에 대해서 이번 서울캠퍼스 사태의 교훈을 새삼 각인해야 하겠다. 또한 기층학생들도 스스로가 본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과·단대별 학자전담 주체의 마련을 통해 다음 학기 학자사업을 진행해 나아가야 하겠으며, 이전의 등투 전담조직의 구성에서 보여줬던 추진력을 더욱 심화된 학자조직을 꾸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경주의 모습이 요청된다.

〈이영환 기자〉

1992학년도 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공고

대학원

(☎ 961-4104, 962-7117)

1. 모집과정 및 학과.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5개계열 37개학과);각 학과 약간명
어문학계: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서반아어. 아랍어. 이태리어. 힌디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동유럽어문학과(신설)
지역학계:아주. 중남미. 중동. 동구. 북미. 아프리카. 서구지역연구학과
사회과학계:정치외교. 행정. 법학. 신문방송. 무역. 경제. 경영. 경영정보학과
인문과학계:철학. 사학과
이 학 계:수학. 물리학. 화학. 전자계산학과
나. 박사학위과정(4개계열 23개학과);각 학과 약간명
어학학계: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노어. 국어국문. 언어학과
사회과학계:국제관계연구. 경제. 법학. 경영. 정치외교. 행정 신문방송. 무역. 경영정보학과
인문과학계:철학과
이 학 계:물리학. 화학. 수학과
2. 원서교부;1992년 5월 26일(화)부터 6월 11일(목)까지
3. 원서접수;1992년 6월 8일(월)부터 6월 11일(목) 17시까지
4. 전형일시;1992년 6월 19일(금) 오전10시부터
5. 전형방법;필답 및 구술시험
가. 석사과정;1)전공, 2)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구술시험
나. 박사과정;1)전공, 2)영어, 3)제2외국어, 4)구술시험

무역대학원(야간)

(☎ 961-4109, 962-7118)

1. 모집과정: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명
2. 모집학과:
가. 경영학석사;무역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과
나. 경제학석사;국제경제학. 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1)논문, 2)외국어, 3)면접
나. 연구과정;1)서류전형, 2)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1992년 6월 1일(월)부터 6월 23일(화)까지
5. 시험일시:1992년 6월 27일(토) 오후 2시부터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함.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시험에 특전있음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을 특별우대함.

*제출서류(각 대학원 공통)
①입학원서(각 대학원 소정 양식, 명함판사진 5매 부착)
②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수여 및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각 1통)
*무역,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 바람
주소: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철1호선 휘경역(외대앞)하차〉

교육대학원(야간)

(☎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석사학위과정 ○○명
2. 전공분야
어문계: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일본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인문사회계:역사교육. 윤리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철학교육
실업계: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1)필답시험(전공), 2)면접
4. 원서교부: 1992년 6월 1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5. 원서접수: 1992년 6월 8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6. 시험일자: 1992년 6월 20일(토) 오후 2시
*현직교사는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재학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함.
*초·중등학교 현직교사, 교감, 교장 및 장학사, 연구사, 교육행정직 5급 이상의 직급에 재직중인 자는 입학시험을 거친 후 특별 전형할 수 있음.

韓國外國語大學校

제583호 1992년 6월 2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사 설

6·3 일주년을 맞아

'6·3사태'로 일컬어지는 정원식총리폭행사건이 국내외로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일어난지도 벌써 일년이 되었다. 지난 일년간은 정원식총리폭행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MBC T.V방송국의 용인캠퍼스 열악한 기숙실태 보도, 총학생회측의 장기간에 걸친 등록금인상 반대투쟁, 그리고 일개월간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며칠 전에 끝난 직원노조파업등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그 '총체적 사건들'로 인하여 개교이래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다른 대학이 아닌 우리대학교에서 가장 첨예하고 격렬한 시위와 분규가 왜 일어나야 했는지를 생각하여 볼 때 학교책임자들과 그 구성원들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대학교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병폐들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냉철하게 반성하여 자기혁신과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부학생들에 의해 자행된 6·3사태는 학생들이 도의적인 비난과 또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불충분한 증거위에 제적되었거나 수배를 당하며 사법적인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완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은 아직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과 죄책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행정책임자의 도의적인 책임의 소재를 다시한번 더 생각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6·3사태 일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대학이 이렇게 '총체적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들중의 하나가 편협한 인사행정과 우리대학의 유별나게 심한 권력지향적 성향에 있다 할 수 있겠다. 우리대학교의 거의 모든 사건의 발단과 그 뿌리는 전횡적이고 불공정하고 공평치 못한 인사행정에 있다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아직 총장임명권을 쥐고 있는 재단은 뚜렷한 교육이념과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사명의식에 투철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기관장으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학교행정을 운영하게 하였는지 반성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총장이 바뀔 때마다 그에게 참신한 행정과 공평하고 엄정한 인사행정을 기대하여 왔지만 대부분 소수 특정인물들의 붙박이식, 자리바꿈식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주었던 사실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디 대학총장은 총장으로서 막중한 임무와 사명감을 인식하여 최고학문기관으로서 대학을 민주주의의 교육현장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여 모든 행정과 인사정책에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여야 한다.

대학총장의 자리가 화려한 경력을 장식해줌으로써 개인의 입신양명의 발판으로 이용되거나 정치퇴물들이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곳이거나 보다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철새처럼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한다면 그러한 행태들은 수많은 외대인들에게 불행한 일이며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일반교수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느끼며 자기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교수들이 캠퍼스를 민주화·자율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무능과 침묵으로 일관된 그 무기력과 지식인 특유의 나약함과 방관자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학원은 민주화·자율화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인사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더욱 비민주적이고 밀실화되어 가는 느낌마저 든다. 교수회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명서나 발표하기 위한 요식행위의 일종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전락해서는 민주주의의 교육현장으로서의 대학교의 올바른 위상이 절대로 수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행정책임자들을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대학에서 총장들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대학에서만 총장직선제의 언급이 거의 금기되다시피하고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선제 시도가 자칫 현직총장이나 재단에 대하여 일종의 신성모독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닌지 반문하여 본다.

6·3사태 일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대학인들은 학교가 이제 만신창이가 된 자화상을 바라보며 심각한 자기비판과 각성을 하며 심기일전하며 실추된 이미지와 명예를 회복하여 우리학원이 민주시민의 첨병으로 그리고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써 미비된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한 인사정책하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정련을 가다듬어 외대중흥의 대장정의 길로 매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념이 아닌 투쟁으로 맞이하는 6·3

6·3투쟁 1주기를 맞으면서 전국교도소의 6·3관련 구속동지들은 5월25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원일(법·법학 3 제적)군의 단식을 시작으로 지난 30일(토)부터 '정원식공안내각 총사퇴와 6·3투쟁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6·3투쟁 1주년을 전시와 기념이 아닌 투쟁으로 맞이하자"라는 정원댁(상경·경제 4 제적)군을 비롯한 우리 구속학우들의 결의 높은 투쟁정신이 있기에 6·3투쟁 1주년을 맞는 오늘은 뜻깊다.

이제 우리 애국외대 학우들도 이들의 의롭고 정당한 투쟁정신에 걸맞게 6·3 1주기를 맞이하자. 의로운 투쟁을 한 동지들, 그 진실을 위해 제한몸 아끼지 않고 투쟁을 결의한 동지들에 대한 의리로 6·3투쟁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투쟁의 역사속에 우뚝서자.

이를 위해 먼저, 6·3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이문벌에 강고한 학생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이다. 6·3투쟁 이후 28명에 가까운 대중간부들이 도피해야 했고 학생회실은 적들의 연이은 침탈위협으로 해만 지면 텅 비었었다. 그러나 외대인들의 학생회 사수 의지는 적들의 탄압에 결코 꺾일 수 없었다. 외대인들의 통일단결된 힘은 적들의 학생회 와해음모를 막아냈고, 학생회를 지켜냈다. 바로 우리가 계승하고자 하는 6·3의 정신은 이것이다. '학우들의 지혜로, 학우들과 투쟁을, 학우에게 승리를'이란 원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학생회로 남았던 것이다.

둘째 우리에겐 아직도 5명의 수배자와 8명의 제적생이 있다. 수배생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경계해야 하고 사람들의 곁을 떠나 있어야 하는 고통은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얼마전 수배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를 일떠세우려는 중국어과 과회장 김현식군의 연행, 구속 소식을 접하였다. 이렇듯 우리가 수배자들의 보위에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는 듯 싶으면 적들은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우리 소중한 동지를 채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지켜내자. 우리 수배동지들이 조국의 품에 마음놓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민주정부 수립투쟁에 한 방울의 피와 땀도 아끼지 말자.

또한 8명의 제적학우들이 있다. 우리가 그 제적과정에서도 명확히 느꼈듯이 제적은 당사자나 부모님의 출석과 의사없이 감행한, 정권의 압력에 굴욕적인 대학당국의 상식밖의 처사였다. 이는 학원자주화투쟁의 과정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대학당국의 부당성을 파헤치고 학원자주화의 거대한 함성으로 우리의 소중한 동료에게 청년학생의 지위를 안겨주자.

세째 구속동지들의 단식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자. 사실, 우리들은 그간 구속동지들을 너무도 무심히 잊고 살아왔다. 지금부터라도 구속동지들의 삶에 애정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려는 모습을 성실하게 지켜보자.

우리 수감 동지들은 양심수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뚫고 6·3투쟁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섰다. 이제는 우리가 화답할 때이다. 전대협 백만학도의 지지서명과 항의서한을 갖고 온몸으로 달려가 외쳐보자. "6·3투쟁 정당하다, 정치적 명예회복 쟁취하자" 교도소내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의정부 교도소로 달려가 외쳐보자. "갇힌 것도 부당한데 폭력사범 웬 말이냐. 양심수로 대우하라" 우리들의 진실한 사랑이 있는 한 구속동지들의 투쟁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6·3투쟁의 진실은 역사속에서 찬란히 빛날 것이다.

지난 전대협 출범식을 통해서 우리는 '6·3투쟁이 승리하는 싸움'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구속동지들의 단식투쟁소식을 듣고 가장 바삐 뛰어다니시는 어머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외대 깃발이 꽂힌 계단에 앉아 "아따, 어찌 이리도 많이들 모였다냐. 참말로 우리 애기들 이뻐 죽겠어"하시며 연신 감탄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신 것이다. 어머님이 6·3투쟁의 진실을 위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서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곁에 우뚝 서야 하지 않겠는가. 자랑찬 6·3의 아들과 그 어머님이 손 꼭 맞잡고 진실이 찬란히 빛날 민주정부수립의 그날까지 한걸음 한걸음씩 내딛어야 하지 않겠는가.

6·3투쟁은 계속된다. 식민으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속에서!

〈6·3 구속·수배 동지회〉

생활터전 기숙사 세심한 배려 요구돼

5월 28일, 그동안 길고 길었던 27일간의 파업이 협상의 타결로 끝이 났음을 직원 노조는 조합장 이름으로 정식 공고 하였다. 그 길었던 파업 기간동안 학생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우들은 여러가지 불편을 꾹 참으며 오히려 지지한다는 대자보를 제시하며, 격려를 보냈다. 학원을 구성하는 3주체중의 하나로 올바르게 자리 굳히는 과정으로서 일차적으로 그들의 권익을 위해 우리들은 우리의 권익을 한 발짝 뒤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왕산에서 24시간 호흡하며, 모든 생활을 교내에서 하고있는 모현학사 사생들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모현학사 사생이 아니라면. 감자바우라 5학기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일은 처음있는 것이다.

파업 기간중, 모현학사는 그 와중에도 우리 생활 환경을 생각하는 일부직원에 의한 약간의 청소가 실시되어 화장실이나 세면장들이 그리 지저분한 편은 아니었으며, 쓰레기의 수거도 실시되어 그나마 생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생들이 기숙사에서 단지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 빨래도 하고 또 일주일에 몇번 샤워도 한다. 그러나, 파업 기간중 사생들은 그렇게 못했다. 보일러의 가동이 중단 되어 샤워도 할 수 없었고, 밤에는 추운 방에서 각자의 체온으로만 잠을 자야했다. 아침이면 춥게 잠을 잔 이유로 피곤하고 온몸이 찌뿌둥하여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고 또, 왕산의 얼음장 같이 차가운 물에 씻으려 손을 담그면 세수고 뭐고 다 그만 뒀으면 하는 생각이 그냥 들어버린다. 그 물에 머리 감으면 머리가 완전 마비 되는 것같고 이후 드라이로 머리 카락이 타기 일보 직전까지 더운 바람을 쐬어야 겨우 살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20여일 동안 우리 사생들은 이렇게 해왔다.

더우기, 이제 유월이라 더운물 공급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중단되는데, 그렇다면 파업 기간중 보일러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분명히 그 유지비는 예산 편성시, 우리가 내는 관리 운영비나 그밖의 예산으로부터 책정되어 있을텐데, 분명히 사용하지 않은 유지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만 하다.

또한, 사생회는 매년 그래왔듯이 그리 활동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사생들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지금 까지 미루어오고 있고 작금의 이러한 사태들을 문제시 하려하지 않는것 같다.

기숙사는 여타 기관과 아주 다른 특수한 상황을 갖는 기관이다. 바로 우리가 사는 집인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너무 무책임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어디가서 하소연 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고, 단지 개인적으로 기숙사 안내실 아저씨 붙잡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우리 사생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운명인가 보다.

〈박성룡 자연·전산3〉

흡산의 소리

27일간 파업의 의미

27일간의 긴 파업을 종식하고 이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맡은 바 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외대 직원노동조합의 자존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끝까지 92단체협약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함께 뜨거운 동지의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전면파업 기간동안 교내생활의 여러가지 불편함을 참아주시고 노동조합의 투쟁을 학원자주화 투쟁으로 인식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외대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0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사립학교 재단의 권한이 공룡처럼 비대해 졌습니다. 이에따라 대학의 직원은 물론 교원의 지위도 일반 여타의 노동자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이나 사회지배의 수단이 없어서 노동을 팔아 생존하는,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직(지식)이나 재력이 열세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순수한 열정으로 악법과의 지난한 투쟁에서 승리하였음은 대학노동운동사에 하나의 쾌거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92단체협약 체결까지의 과정을 새롭게 조명해 보면,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산하 학교기관에 사학법에 맞추어 정관을 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정관개정안을 교육부에 인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관이 인가되기전에 단체협약 갱신교섭(92. 2. 27)에 들어 갔으며, 학교에서는 정관 개정에 따라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재단으로 이관되어 있다는 분명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기존 단체협약 내용중 '제3장 인사'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교섭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몇차례 단체교섭의 난항끝에 학교측에서 내놓은 '92단체협약안에는 '제3장 인사' 부문의 27개 조문이 4개조문으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5월 4일에 교육부에서 인가된 정관(92. 4. 3교육부장관 승인)이 학교측으로 부터 넘어왔고, 이 정관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총장으로부터 이사장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인사권(임용권)을 상실한 학교는 단체협약중 인사제도에 관하여는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재단과 학교당국이 개악된 사학법을 무기로 '90년 노동조합과 대학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대학노동자들의 제권리를 일시에 박탈하고 개악된 정관에 굴복시켜, 대학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학노동조합운동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92년 단체협약 갱신체결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노사교섭은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아 노동조합의 전면파업 투쟁이 장기화되어 양상을 드러내었으며, 결국 학교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밟게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법(정관)에 우선한다는 '조정안'에 따라 학교는 인사제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끈질긴 인내와 치열한 투쟁끝에 '인사·경영의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된 '92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서로 고생이 많았고, 상처도 깊었습니다.

그래도 대학의 기층노동자가 학원의 자치를 주장하며 자주화의 선봉에 서서 현행 법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분연히 정면 돌파하려고한 몸짓은 '힘의 논리'앞에 항상 기회주의적이었던 직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약 투쟁의 승리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욱 성실히 학사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나아가서 학원의 각 주체들과 연대하여 악법인 사립학교법의 개정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총액임금제를 저지하고 '92임금협약도 승리하겠습니다. 〈장건 직원노동조합장〉

불의에 타협하는 것이 도덕이라면 난 차라리 패륜아가 되겠습니다

—흡산—

쇠파이프 대신 계란을, 최루탄 대신 밀가루를 선사한 멋진 선배님 —경영 92 Bis—

6·3 그 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투쟁의 불꽃 당긴다. —Min—

그날의 정××씨를 생각하며 이를 갈아온지 어언 일년. 어금니가 다 닳았네. —틀니 삼대—

우리를 졸지에 악마새끼로 만들어준 언론은 아직도 건재하다. 조선일보 항의 방문가자. —나대로—

백지 대자보

주제:6·3 일년후 나의 외침(6·3투쟁 1주년을 맞아)

계란으로 바위(?)치기 어디 한 번 더 해볼까? —넌자—

6·3투쟁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 우리 어깨위에 놓인 몫이다. 무관심과 외면의 벽을 허물라. —외통—

공안통치 내각에 정당한 항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잡범 취급이라니,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청춘을 보상하라. —젊은 오빠—

작년에 눈물을 찔끔거릴만큼 감명깊었던 총장님의 총리에 대한 사죄광경. 그게 참교육 싹쓸이 장본인에게 한 것이어요? —수—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삼성은 매년 사원 400여명을
세계 45개국에 1년간 파견,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속에서 자유롭게 경험을 쌓은 1년 —
저 넓은 하늘만큼이나 많은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정 민호 : 인하대 금속학과 졸업, 영국 파견
오 홍진 : 고려대 농경제학과 졸업, 일본 파견
권 오국 : 외국어대 서반어학과 졸업, 브라질 파견
이 용철 : 인하대 기계학과 졸업, 대만 파견
박 형식 : 항공대 전자학과 졸업, 영국 파견
변 성호 :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파견
이 현주 : 경북대 전자학과 졸업, 독일 파견
서 승진 : 단국대 경영학과 졸업, 멕시코 파견
안 석희 : 서울대 서반어문학과 졸업, 스페인 파견
조 용봉 : 성균관대 무역학과 졸업, 일본 파견
이 용남 : 고려대 전자공학과 졸업, 독일 파견
이 진영 : 세종대 영문학과 졸업, 말레이지아 파견

삼성은 인재의 국제화를 위해 매년 3년차 사원의 10%, 400여명을 세계45개국에 1년간 파견하고있습니다.

삼성은 인재의 국제화를 공허한 구호가 아닌 직접적인 사원파견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사원이 아닌 일반사원을 파견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젊음의 패기를 통해 더 넓은 안목으로 세계를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 창업이래 일관되게 지켜온 '인재제일'의 기업이념 ——
이제 국경을 넘어 전세계를 무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파견자는 업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현지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현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삼성은 파견사원에게 현지언어습득, 상관습과 문화체득, 여행 및 현지인과의 사교 등의 큰 줄기 외엔 어떤 업무도 요구하지 않으며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을 위해 철저한 자기의사와 계획에 따라 생활하도록 합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마저도 국제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또 그 경험들을 소중히 합니다.

3년전부터 시작된 독신파견제를 통해 양성된 지역전문가들이 이미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해 이미 많은 젊은 지역전문가가 양성되었으며 이들은 독신파견제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넓은 세상만큼이나 큰 뜻을 지닌 큰 뜻을 지닌 이들 —
이제 이들은 삼성의 인재이자 나라의 인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신파견제는 출신학과는 물론 맡고 있는 업무와도 관계없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
三星

서울 총학 보궐선거 세후보 등록

각각 추천서명 받아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후보자 모두 진보·민주 학생회상 제시

서울캠퍼스는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임으로 26대 총학생회 집행부가 전원사퇴한 가운데 지난 28일(목)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지난 28일(목) 마감된 서울캠퍼스 제27대 총학생회장 후보등록 결과 박상남(서양·노어4)·원치승(정과·정외4)조, 유은철(서양·불어4)·김정일(정과·정외4)조, 정명진(상경·무역4)·김민권(법·법학3)조가 각각 1천90명, 7백45명, 8백52명의 추천인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이들 각각의 후보자들은 오는 9일(화) 오후3시 노천극장에서 합동유세를 실시하고 11일(목)·12일(금) 있을 총학생회장선거에 공식 입후보자가 됐다.

각 후보자별 출마배경과 공약사항을 보면 외대발전 추진위원회 대표로 나온 기호1번 박상남·원치승조는 '외대발전을 위해 거듭나는 총학생회'라는 이름을 걸고 출마해 이후 본교발전에 대해 주력할 것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학생회가 한 정치조직의 소유물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본교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출마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호2번 유은철·김정일조는 '진보와 지성의 총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진보학생연합'이 가지는 학생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줌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학생회를 재건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는데 이번 총학생회장 출마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운동 전반을 공개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적 학생회에 대한 확신을 실천으로 보여줄 것임을 밝혔다.

기호3번인 정명진·김민권조는 '파괴와 건설, 제27대 다시 서는 총학생회'라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학생회의 민주적 재건을 통해 정파를 떠나 공동집행부를 구성,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추진력있고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후보들은 모두 공약사항에서 나타나듯이 이전의 정치·조직노선관철의 장이었던 경직된 학생회의 풍토를 비판하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변화하는 진보적·민주적 학생회상을 제시하고, 기존의 학생회 관습을 벗어나려는 새로운 학생회관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학생회 운영이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실질적으로 아래로 부터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와 얼마나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가가 이번 총학생회의 과제로 보여진다.

〈노재봉 기자〉

하나됨을 위한 '왕산 대동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 92년 1학기 주요 행사중의 하나인 '왕산대동제'가 지난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학내 곳곳에서 치뤄짐으로써 이제 '세계민속예술축전'(이하 세민전)의 개최만을 남겨놓고 학내의 공식적인 모든 학생측 주최 행사는 일단락나게 된다.

이번 대동제는 지난했던 등록금투쟁을 마감하며 학내 주체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이후의 통일논의에 대한 의식을 높여 2학기 사업의 원동력으로 하기 위한 대동의 자리를 마련한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자주·민주·통일'을 주제로하여 일반 학생들의 전대협 출범식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학내 의식을 고양시켜 나간다는 정치적 의미 또한 행사기획의 주요 목표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단대와 학과의 독자적인 행사기획 및 진행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방안이 의도면에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안이 내포하고 있는 전체 행사의 소극적인 참여와 학생회의 통제력 상실 등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난 부정적인 모습도 보였다.

처음에 총학생회에서는 자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별

행사축소와 준비 미비로 총학 통제력 상실 보여

로 연합주점 등의 수익사업체를 꾸려 나아가도록 했으나 이러한 기획의도와는 달리 각 학과별, 동아리별 수익행사장이 난립함으로써 대동제 기간동안의 학생회의 통제가 미약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마지막날인 27일에 있은 '모의 전대협출범식'에는 학생들의 참여 저조로 인하여 행사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체 행사는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치룬다는 당초의 기획에 있어서도 여러 단체들이 한 곳에서 행사를 치루려했기 때문에 장소 사용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자연대의 경우에는 단대의 위치가 다른 단대들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독자적인 행사운영권을 부여했으나, 이로 인하여 총학생회의 통제력이 약화됐으며, 항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노래방'등이 개설되어 대학내의 문화풍토를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이번 대동제는 또한 각 학과의 체육행사가 주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 전체적으로 학과별의 자족적인 모임이 많았다. 이는 결국 총학생회측에서 대동제 개최에 따른 알찬 행사진행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또한 대학가의 대동제에서 그동안 소개되어 왔던 정치풍자극과 모의 가두시위 등 일반적인 행사들이 열리지 않아 기존의 대동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노출은 일차적으로는 총학생회측의 행사 축소 방향과 준비기간이 짧았던 점, 앞으로의 세민전 개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행사를 고려하지 않은 단대·학과별 자체행사의 기획도 원만한 대동의 한마당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을 없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부〉

노조, 28일 '단협'타결로 전면파업 철회

6월 임금협상은 '총액'과 관련 마찰 예상

본교 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과 대학당국 사이의 92년 단체협상의 난항에서 시작된 직원노조 전면파업이 27일(수) 쟁점사안에 대한 대학당국의 일부 수용이 이루어져 일단은 정상적인 학사업무로 복귀하게 됐다.

직원노조측은 이와 관련하여 당일 서울캠퍼스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파업 진행과정과 대학당국과의 협상안 합의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의 후속작업으로 직원노조는 28일(목) 장건(출판부 주임)조합장 명의의 유인물을 통해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물에서 직원노조는 앞으로 △대학행정권의 독립을 통한 진정한 '직원의 상'정립에 전력할 것 △훼손된 학원의 자주성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대학발전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외대인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창출할 것 등을 재천명 했다.

이번 직원노조의 대학당국과의 단체협약(안) 체결부분을 살펴보면 당초 92년 협상안으로 내놓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사·경영권에 있어서의 조합원의 참여부분은 직원채용에 있어서 '조합은 비전임직 채용시에만 협의한다'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징계·재심위원회의 조합참여부분도 결정권은 여전히 법인이 소유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직원노조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던 '유니온-샵'제도로의 주장도 대학당국과 재단측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또한 25일(월)까지 난항을 보였던 '학자금 지급'(제73조 1항)에 있어서는 기존 직원노조가 주장했던 '학자금 지급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 일부분만 관철됐다. 이와함께 별도의 약정서에서 양측이 합의했던 '대학은 재단과 대학간의 직원인사교류를 하지 아니한다'는 부분과 '쟁의기간 중의 임금지급'부분에 있어서는 대학당국이 이를 다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의 대립에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교섭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기도 했다.

이로써 단체협약은 일단은 파업철회와 함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의 임금협상 또한 그리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속에 직원노조와 대학당국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대학직원노동조합 소속의 여러 대학들이 총액임금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금협상에서 대학당국이 태도를 돌변, 노동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각 대학 직원노조들이 파업을 단행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본교 대학당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임금협상안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단체협약에서 보여준 태도를 고려할 때 직원노조와의 다시한번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림〉

이번주 583호 발간을 마지막으로 92년 1학기 신문을 종간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빈의자

'동지'의 맹세를 위해

▲정원식 총리 서리가 살신성인(?)을 함으로써 그들의 위대한 시나리오는 완성될 수 있었다.

강경대군 치사 사건 이후 폭발적으로 끓어오르는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노재봉 내각에서 정원식 내각으로 허울좋은 교체를 해보아도 정원식 내각 하루만에 김귀정양이 최루탄 가스에 의해 사망을 했으니 수세국면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속에서 발생한 6·3투쟁을 빌미로 현 정권은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교수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겠다는 미명하에 수행원과 기자까지 대동하고 본교를 찾아든 정원식 총리 서리에 대한 계란과 밀가루의 항의시위 투쟁은 그야말로 호재였던 것이다.

제도언론까지 동원한 대대적 여론재판은 대학생을 패륜아로, 대학을 패륜아의 양성소로 매도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정치적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으로 치부하면서 학생운동권 도덕성 운운하며 탄압을 가시화했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학생 대중간부의 대대적인 수배, 구속의 회오리가 지나가고 학생회의 조직력이 이완될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은 더욱 꿋꿋한 단결투쟁으로 학생회를 지켜 나갔다.

구속자들의 소내 투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광렬(서양·영어4)군은 6·3투쟁의 정당성과 함께 양심수임을 주장하였으나 법률상 일반 폭력범으로 분류되어 이감을 갔기 때문에 가자 마자 강제로 머리를 깍이고 부역을 강요당했다. 이에 단호히 거부하자 옷을 벗기고 팔다리에 각목을 끼워 오랏줄로 묶인채 일명 '통닭구이'라는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열흘간의 결사단식으로 6·3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아갔다.

▲'정원식 공안내각 총사퇴와 6·3투쟁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구속자 동지들이 지난 30일을 기하여 일제히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6·3을 기념이나 전시가 아니라 투쟁으로 받아안기 위한 수감자들의 뜨거운 투쟁의 결의인 것이다.

이제 더욱 치열한 투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화답해야 할 때이다. 6·3투쟁의 진실 규명속에서 수배, 구속자들을 적들의 쇠창살에서 되찾아내고 우리의 학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복적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바로 남아있는 우리의 몫이다.

〈강인숙〉

……보매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陰府)가 그 뒤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6장8절

혁명적인 투쟁의 삶을 체험한
테러리스트 사빈코프의 자전적 소설

창백한 말

… 자본가니 노동자니 하는 계급과는 관계없이 혁명적인 정열이란 것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고 이 정열이 발동하면 그 생애는 혁명적 생애일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진실을 몸소 체험한 것이 사빈코프이며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그의 문학이오 ….
— 이병주 저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중에서

의식과 생활 사이의 괴리, 의지의 세계와 감정의 세계 간의 격리, 강한 종교성과 철저한 무신론적 입장의 이상한 배합, 강한 도덕적 사명감과 극단적 허무주의,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과 파괴적인 소유욕, 곧 극과 극의 상호작용은 러시아 문학 전통의 숨은 문법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사빈코프에게서 그것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두드러진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소장 이인호 교수

이인호 교수의 「사빈코프와 그의 자전적 소설 '창백한 말'」을 먼저 읽으시고 본문을 읽으세요(171쪽부터).

값 3,500원
도서출판 운정
전화 (02) 723-7640, FAX (02) 739-9171

제27대 총학생회 정·부 후보자

기호 1번

정:박상남

63년. 서울출생
82년. 수원 유신고 졸
87년. 이한열 열사 시신사수대
대통령선거 감시단.
89년. 외대 노어과 입학
92년. "외대를 사랑하는 학우일동" 대표
외대발전추진위 준비위원장
제27대 총학생회장 입후보

부:원치승

67년. 서울출생
80년. 서울 서교국민학교 졸업
83년. 서울 마포중학교 졸업
86년. 서울 잠실고등학교 졸업
86년. 한국외국어대학교정책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입학
92년. 정외과 4학년 재학중.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대외협력국장
제27대 총부학생회장 입후보

"외대발전운동은 우리의 가까운 모순과 싸우고자 하는 진정한 변혁운동이며 자존심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통해 다시 투쟁의 구심으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새로운 도약
제27대 외대사랑총학생회

기호 2번

정:유은철

70년. 서울출생
88년. 의정부고 졸업
88년. 외대 불어과 입학.
89년. 서양어대 학술부 차장.
90년. 불어과 사회과학회 학회장
6월 집시법으로 구속.
91년. ·민중당 외대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92년. '민중진영 독자정당 지지와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외대 학생 선거투쟁 연합' 의장
진보학생연합(추진위)준비위원
제27대 총학생회장 입후보

부:김정일

69년. 서울 출생
88년. 대원 외고 졸업
89년. 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89년. 동아리 사회철학회 입회
동아리 연합회 학술부장
민중당 외학추 준비위원
92년. 외대발전추진위원회 조직국장.
진보학생연합(추진위)준비위원
제27대 총부학생회장 입후보

변화의 모색, 새로운 실천!
여기 7천 학우와 함께 걸어나갈
진보와 지성의 길이 있습니다.

기호 3번

정:정명진

69년. 충남 보령 출생
88년. 대전 유성고졸
88년. 외대 무역학과 입학
89, 90년. 총학생회 노동분과장
90년. 민생파탄 부정 비리 주범 노태우 정권 타도와 전투적 민중연대를 위한 외국어대 특별위원회 연대사업국장.
91년. 제8대 동아리연합회장
6·3사건 비대위원
제26대 총학생회장입후보
92년. 제27대 총학생회장 입후보

부:김민권

70년. 전남 장흥 출생
88년. 광주고 졸
90년. 외대 법학과 입학
사회사상연구회(들불) 활동
92년. '칼과 저울' 사회문화부장
제27대 총부학생회장 입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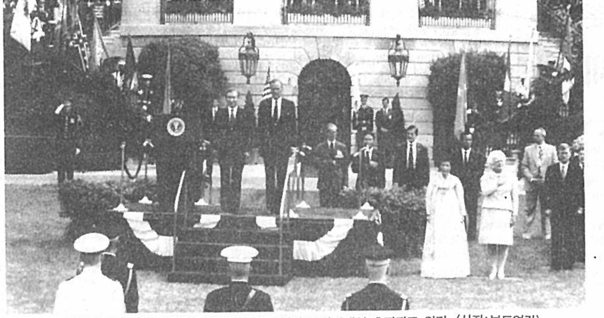
파괴와 건설
제27대 다시 서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국의 한반도 정치 개입사

권력재편기

서인석
〈한국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구상아래서 추진되고 있다. 〈사진:보도연감〉

남한 지배의 동반자 군부 독재 정권의 수립을 지지

3당 통합, 미국과 노정권 위기의식의 결과

대한반도 정책에 따라 '92 '93 권력교체기에 개입

정치변동과 '미국의 구상'

지난 5월 19일 집권 여당인 민자당의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권향방을 둘러싼 쟁투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비등점'을 향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향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따라 대결구도 자체를 달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권력교체기에 이르러 가장 커다란 변수로 작용해온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이는 정국개편의 매 시기마다 미국의 정치적 개입이 두드러지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커다란 규정력으로 작용해 왔던 한국 현대사의 경험에서 뒷받침된다. 가깝게는 6·29로 대표되는 6공화국의 탄생과 3당통합의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 개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멀게는 이승만정권 수립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대통령이 당선 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계개편과 미국의 정치적 개입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권력교체와 관련한 우리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치적 구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부역학이라는 측면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역학관계 못지 않게 권력교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구상이 결정적인 규정력으로 작용해왔던 역사적 경험에서 '미국의 구상'이라는 부분은 내부역학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92~93년 정권교체와 관련한 미국의 구상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쉬운문제가 아니다. 이는 특히 앞으로도 많은 변수가 가로놓여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 시기 미국의 정치적 구상이 무엇인가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동북아구상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기본적으로 동북아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양상들을 살펴봄으로써, 현단계 미국의 정치적 구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87년 이후 6공화국들어서의 미국의 정치적 개입 과정만을 살펴보겠다.

온건한 친미 군부세력 지지

주지하다시피 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는 미−소라는 초강대국에 의해 일차적으로 구조화됐다. 그리고 여기에 남과 북,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결합함으로써 결국 동북아질서는 한−미−일로 연결되는 '남방삼각관계'와 조−중−소로 연결되는 '북방삼각관계'에 의해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냉전시대의 한반도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해기반의 최대보루, 즉 미−중−일 대소연합체제의 보완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미국의 이같은 동북아정책은 한반도에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다가왔다.

첫째, 종래의 한반도 분쟁이라는 국지적 개념에서 벗어나 공격적 대소 안보체제로서의 전환 둘째, 냉전의 강화와 역할분담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지출과 부담을 남한이 지게된 점 셋째, 일본의 군국주의적 확장이 삼각안보체제 속에서 한반도를 겨냥하여 접근해오고 있다는 점 넷째, 한정핵전쟁과 '사활적 이해상관지역'(핵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미국의 이익을 지키지 위해 수호하는 모표지역), 실제 핵무기 배치 등은 '한반도 유사시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발언과 함께 한반도의 핵전장화의 우려를 가져왔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치적 개입은 좌익 혹은 민족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줄 수 있는 군부독재정권의 수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다시 말해 미국은 새로 수립되는 정권이 어떠한 폭력적 방법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느냐와 관계없이 단지 동북아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보장해주느냐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군사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유신정권과 전두환정권을 미국이 승인·지지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80년대 후반들어 과거와 달리 제3세계에 대해 '신개입주의'를 새로운 정책적 목표로 설정, 정치적 개입과 관련한 방법상의 변화를 시도했다. 즉 미국은 1987년의 정치적 격동기를 맞아 안정적인 친미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모순이 누적된 위기상황을 일방적인 탄압과 공격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전술과 물리적 공세라는 '2중정책'의회민주주의를 실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1987년에 군부 극우세력과 좌경세력을 배제한 채 온건한 친미 군부세력을 남한지배의 동반자로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3당통합과 권력교체

결국 레이건정권은 제3세계내의 군사개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가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른바 재민주화정책(Redemocratization Policy)을 추진하는데, 이는 군부를 권력의 중추로는 삼되 일단 정치 전면에서는 퇴각시키면서 선거를 통한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써 미국은 권력의 기반이 동요하고 있던 전두환체제를 퇴장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 친미적인 신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친일라인의 핵심인사인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정치적으로 부상한 것이나 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일본의 보수연합공작에 관여한 전 CIA요원 출신의 도널드 그레그가 주한미대사로 부임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정치적으로 부상한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강조한 바 있는 미·일의 관계변화 및 권력교체와 관련되어 있다. 즉 잘 알려져 있듯이 박태준은 일찌기 일본정계의 문하에 입문한 바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일본의 막강한 측면지원을 보장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레그는 일본에서의 자민당 창당 경험을 토대로 1990년 서울에서 3당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돌이켜보면 3당통합은 무엇보다도 제6공화국들어 형식적·절차적 차원에서 나마 일시 진행되었던 민주화조치들이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의 계급적 자각 및 급속한 정치적 진출로 인해 한계상황에 부닥친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바꿔말해 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노골적 폭력행사에 근거한 취약한 권력기반, 이에 따른 '정권재창출'의 전망부재 등이 미국과 노정권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3당통합을 가져왔던 것이다.

특히 민자당은 원내 3분의 2이상이라는 원내의석수를 가지고 보수연합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내각제 개헌'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3당통합이 내각제 개헌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3당통합 이후 민자당이 1989년 12월 15일 여야대타협에 의해 1990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제 실시를 무기 연기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92~93년 미국의 개입

이상의 두 가지 점을 근거로 향후 미국이 원하는 정권의 성격을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미−소관계를 대신해서 미−일관계가 동북아지역의 정세를 규정짓는 일차적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한−미−일간의 '역할재조정' 문제와 함께 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의미가 탈락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갈등관계가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이 자신들의 이해를 가장 잘 관철시켜주고 있는 현재와 같은 동북아 정치·군사질서를 단호히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수립되는 정권이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적절히 재어하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펙(APEC)체제로 포함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조−일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군부가 일본군과의 공조관계를 맺는 한편 일본군의 급격한 강화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조−일관계와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를 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열어주는 '창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상의 두가지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92~93년의 교체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이다.

글싣는순서
Ⅰ. 해방이후 87년 대선까지
Ⅱ. 6공화국 들어서
'92 '93 권력 재편기를 맞아

사회변혁의한걸음학생운동

두번째 대중성 강화로 나아가는 90년대

자주·민주·통일의 3대운동 강령을 전면화

학생대중을 변혁의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 과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학생운동은 조직, 사상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된다. 먼저 조직적 측면을 살펴보면 전대협이 제4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조직혁신의 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시기 전대협이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에 있어서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그 투쟁을 보다 조직화할 수 있는 자주적 학생회의 건설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요구는 87년 이후 운동의 대중화와 함께 각 대학 총학생회가 민주화되고 이에 따른 전대협 조직역량의 급격한 발전이 그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4기를 맞이하면서 보다 비대해진 전대협의 사업영역만큼 광범위한 기층 학생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상층간부중심의 사업과 선포식 투쟁이라는 비판도 자리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제는 전대협이 백만학도의 실질적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 해야한다는 요구에 기반해 과학생회의 자주화를 통한 기층 학생회의 자주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90년도 학생운동의 또하나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흐름은 이후 전총련(전국대학총학생회 연합 이하, 전총련)건설의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90년대로 접어든 학생운동은 기층의 자주화 뿐만 아니라 사상적 측면에서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3대강령을 전면화 시켰다. 그것은 지난 88, 89년의 통일투쟁의 성과를 90년 연세대에서의 범민족대회 개최와 11월 베를린에서 전민족적 통일운동 연합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건설로 구체화 된다. 그리고 이후 전대협의 투쟁노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요구에 기반한 각 영역별 투쟁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변혁운동의 방도와 전망을 수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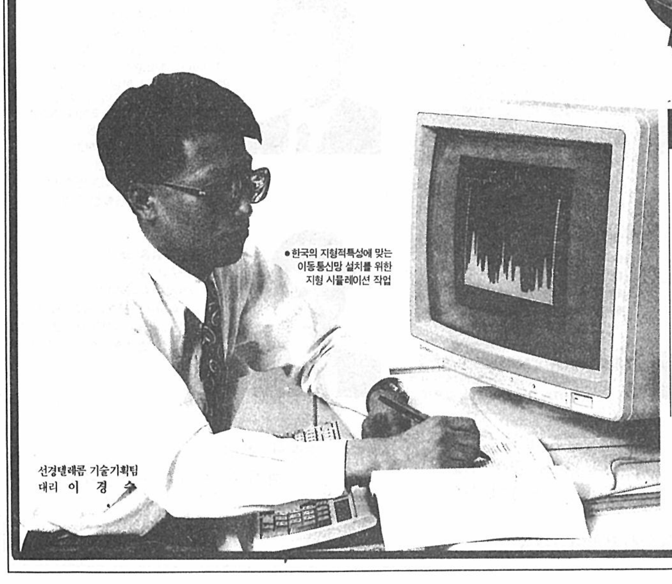
5기로 넘어오면서 전대협은 투쟁노선뿐 아니라 조직노선을 새롭게 정비하게 된다. 투쟁노선만 세워왔던 예년에 비해 전총련 건설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조직노선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단위 학생회의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본격적인 전총련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던 것이다. 전총련 건설이라는 조직적 과제를 부여안은 전대협은 투쟁노선에서도 92, 93년 권력재편기에 민민운 진영의 승리를 위한 민주대연합 구축이라는 구국운동의 과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은 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지만 여전히 많은 난관과 갖가지 편향들이 나타나게 된다. 올해 들어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세계정세의·전반적인 보수화 추세와 함께 이를 통한 정권의 민민운 진영의 탄압은 학생운동의 탈 정치화 현상을, 부추김으로써 학생운동은 대중성 강화라는 또 다른 과제에 착목하게 되었다.

대중성 강화라는 당면한 학생운동의 과제는 그 올바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가에서 여러가지 편향과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대중성 강화를 외치면서도 그 대중성 확보의 방향을 문화행사 위주로 일관하는 집회형식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지금의 대중성 강화의 과제가 이전에 정치투쟁 위주로 일관된 학생운동의 오류에서 기인한다라는 제도권 언론들의 왜곡된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중성의 근본원칙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원자주화투쟁의 경우 대다수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더라도 대중성의 구현은 바로 학생들을 스스로 학원의 주인주체로 일으켜세우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 변혁운동의 임무를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체득케하는 사업작품인 것이다. 올해 전대협 조직노선의 총좌표라고 할 수 있는 백만학도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는 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즉, 이제 학생운동은 변화된 정세와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에 맞게 보다 더 학생들의 생활, 학문적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90년대 학생운동은 대중성 강화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 그럴때만이 현시기 정세의 어려움을 뚫고 학생들을 변혁운동의 대오에 보다 더 튼튼히 묶을 수 있을뿐 아니라 이후 전총련 건설로 도약할 학생운동이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현숙 기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일 –
선경이 하고 있습니다.
선경은 국내 최초로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등 세계 곳곳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통신혁명을 준비하는 정보통신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준비하는 21세기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은 어느새 밤9시를 향하고 있지만 US셀룰라사와 함께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네시주 이동통신사업의 현황분석을 위한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통신시장에 진출, 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술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에 회의의 열기는 더해간다. 2000년대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 정보통신산업. 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적 설계 및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담당으로서 나의 목표는 이미 신입사원시절부터 구체화되었다.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3년전, 국제적 안목과 패기 함양을 위해 참여한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식민지의 상처를 씻고 새롭게 변모하는 동남아의 모습만큼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시장진출 현황이었다. SONY, IBM의 상표가 낯설지 않듯이 그곳은 이미 선진국들의 경제적 각축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우리의 기술로 동남아에 정보통신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그날을 다짐하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89년 해외전지훈련중 싱가포르지사에서 지사원들과 함께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쉐라톤워커힐·선경건설·(주)유공·유공해운·(주)유공가스·유공아코화학·(주)홍국상사

◇신정동 6-1지구 철거지역 투쟁기

제2의 수서비리 음모, 신정동 철거

기동취재

재개발법 악용, 이주 대책없이 강제철거 자행

민생탄압에 일상적 빈학연대로 대응해야

"이 XX야, 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겠어. 그래 화염병인지 가져 왔으면 던져 봐라"

이미 쓰레기장처럼 들이닥친 20명의 용역들의 호위하에 포크레인 3대가 30분만에 신정 6-2지구를 쓸어 삼키고 빈민의 생존권을 죄어오는 음험한 차바퀴소리가 신정 6-1지구로 몰려들었다.

생가의 완전한 철거를 명시한 1차 계고장의 만기일인 25일, 철거지역 전주민의 규찰강화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포크레인 소리에 후다닥 모인 주민들이 세입자 대책위원회(위원장:최재식)본부로 모여들었다. 용역 깡패들의 거친 욕이 퍼부어지는 속에 '선입주 후철거'를 주장하는 주민과 분을 참지 못한 세입자들이 여기저기서 "신나 가져와"라며 대치상태로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자리에 모인 이들의 가쁜 숨소리는 "쓸만한 화염병이 몇개나 남아 있을까. 연락한 서총련 학우들이 어서 와야 할 텐데…"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전과 4-5범의 폭력범으로 조직된 적준개발회사(대표:정숙종, 44세)의 일용직 노무자들이 무법천지를 만들었던 4월3일의 악몽을 되내이는 주민들의 항의에 "내무부 허가를 받고 20년 동안 철거만 해왔다"는 용역반장은 울그락 불그락 하는 얼굴에 화를 감추지 못했지만 숫적 열세를 감안했는지 일단은 철수 무전을 쳤다.

"오늘은 그냥 가지만,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신네들과는 말로 안되겠다. 하루만에 빈집이고, 생가고 간에 철거시켜 버리면 우리도 편하다"며 살인적 폭력철거 위협도 잊지 않았다.

현재 살인적인 강제철거가 단행되고 있는 신정2동은 89년 재개발지구로 고시, 합동재개발지구로 사업인가가 나 양천구청의 관할하에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조합장:서완석)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91년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재개발조합과 현대건설은 '1천2백14새대의 영구임대주택보장과 기간내 가수용시설의 설치'를 파기하고, 현지 세입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규정강화(시행령 고시 3개월 이전 세입자 해당)와 폭력적 강제철거 이주대책비(4인가족 기준 2백40만원, 단독세대 120~130만원)을 받고 철수하라고 위협하고 있다.

"현재 4백만원의 전세금과 이주대책비로는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수용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지, 아무런 대책없이 주민을 쫓아내면 우리들은 길가에 나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16년동안 신정동에서 살았다는 조항란(44세)씨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대안없는 시책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적은 이주대책비로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비참한 현실임을 토로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이 아닌 법적 효력도 없는 구청장이나 재개발 조합장의 직인이 찍힌 몰딱지를 받고 여기서 나가라니요."

결국 영구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금의 재개발법을 악용,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셈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지금도 영구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아파트로 1차 용도변경을 실시, 그 이익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은 줄잡아 2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시도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철거깡패들의 위협에 못견딘 주민들이 이주하여, 8백여 가구가 살았던 신정동 일대가 지금은 1백20가구의 어른 50~60명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와같은 폭력을 사용한 철거깡패들이 폭행협의로 고소되어 '조사중'일때, 철거주민들은 60노모에 이르기까지 폭력 및 방화로 구속,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이춘복(세대위 위원장 부인)씨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오정섭(전 규찰대장)씨는 폭행협의로 구속, 최재식 세대위원장은 수배중이다.

이미 빈집들의 철거를 허락한 타지구에 비해 유독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신정 6-1지구 주민들. 이들의 생존권 투쟁현장은 바로 현정권과 독점재벌의 유착이 체제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 공생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91년 수서특혜는 물론 92년 교육원매각에 이르기까지 현정권의 반민중적인 생존권 압살은 이번 신정동 철거현장에 나부끼는 현대건설의 깃발과 나란히 빈민의 목을 조여온다. 이러한 자본축적과 권력창출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본자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눈의 가시인 신정동 세입자들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깡패 고용비로 9억5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쯤은 이들에게는 차라리 푼돈인 셈이다.

한편, 4월3일 신정동 살인철거 진상조사단에 결합 활동하기로 한 박계동, 이철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 및 정기 전당대회'때문에 전혀 활동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보수야당 속성의 한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선에는 견제세력, 대선에는 중도정치를 표방하며 시기와 상황에 은신하고, 뒷북치는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이 응집되어 현사회의 일면을 반영하는 신정 6-1지구 철거민 투쟁현장. 그지역의 세입자들은 경기도 일대까지 수도권이라 하여 강제 편입되어 주택난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또다시 빈민촌으로 흡수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빈민들의 철거투쟁은 곧 생존권 투쟁인 것이다.

"학생들, 고마와요. 그래도 학생들이 와 주었기에 용역회사에서도 쉽게 철거하지 못하고 있어요"라며 빈민-학생의 연대가 필요함을 말하는 규찰대장 박노남(35세)씨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신정 6-1지구를 지키기 위해 규찰을 돌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 공동기자단:본보 류상준 기자〉

정부의 대안없는 시책으로 주택난과 생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제공:건대신문사〉

노동탄압 위한 경총의 개악카드

경총의 노동법 개정안의 본질

합법 가면쓰고 노조투쟁 무력화 기도

본질 규명으로 노동법 개정음모 분쇄해야

90년 3당 합당 이후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을 제도화시키려 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 구속, 해고뿐 아니라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을 억압하는 총액임금 5%, 나아가 노동법 개악을 통해 87년 6월 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과 88년 4·26총선의 여소야대 국면으로 조성된 민주화의 흐름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지배질서를 더욱 공고화시킴으로써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지배질서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경제, 정치 실패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현 민자당 정권은 이를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을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유신체계 때보다도 더 나쁜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잘못된 흐름에 발 맞추어 독점재벌의 대 노동조합 창구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2년 5.19 노동법 개정에 관한 경영계 의견(안)을 제출했다. 그 주요 골자는 근로기준법상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리 노동자들이 쟁취한 부분적인 개선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제로 개선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조합원'이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4항 단서 조항을 쟁취했다. 지배자들은 지금 개선된 내용을 개선 이전보다 더, 나쁘게 개악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즉,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에 대해 경총은 월차 휴가제(제47조)를 폐지하고 연차(제48조), 생리휴가(제59조)를 폐지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늘릴뿐 아니라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주 44시간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연장근로(제42조 1항)는 노사협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인 제제를 받지 않으려 하고 있고 파트타임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식, 해고조항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본공과 임시공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 내부의 갈등·대립을 조장시켜 직장의 불안정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휴업지불(제38조)도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70%로 하향조정하고, 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청춘을 다 바친 장기근속자들을 쉽게 직장에서 쫓아내려 하며 징계중 감봉액의(제96조) 폭을 넓혀 자신들의 노동자 징계건을 강화하여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제도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일천만 취업노동자들 모두에 해당되는 자본가들의 심각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광산노동자들속에서 첨부하려 하는 등 노동법이 생긴 이래 최악의 근로기준법 개악시도안이 이번 경총안이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보다 더 문제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법 개악이다. 노동조합법 개악의 핵심은 첫째, 해고효력을 다투는 사람이나(제3조 4항 단서 삭제 요구)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장내에서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게 명시(제4조)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자본측이 유도하는 어용의 틀속으로 강제이입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이른바 대표성 시비로 알려져 있는 단체교섭 체결시 노동조합법 제19조 1항 3호에 명시돼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바꾸고 교섭권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여 노동조합을 독선적,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바로 노동조합법 및 정신 즉,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제3조), 제14조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자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반노동자적, 비민주적인 악법조항이다.

셋째, 단체교섭의 사항을 협의의 근로자에 대해 한정하며 경영, 인사관련사항을 교섭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제33조) 단체협약이 끝난후 3개월간의 유효기간(제35조 3항)조차 삭제함으로써 협약자체를 무력화시키려 기도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제19조 2항) 것을 없애고 결손집회는 단순 다수 확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경총안은 노동쟁의 조정법 역시 크게 개악시키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새롭게 명시하고 동정 파업, 정치 파업, 불매운동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냉각기간(제14조)을 늘릴뿐 아니라 냉각기간 동안 반드시 알선과 조정을 받도록 명시하여 쟁의의 어떠한 합법성도 없애려고 기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자신들은 직장패쇄(제17조)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누가보아도 합리성을 결여한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집권여당이 집권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반노동자적 개악안의 주요골자이다.

이러한 경총의 노동법 개악기도는 87년이후 급속도로 성장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며, 지난해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게 됨에따라 89년이후 또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노동계의 노동법개정투쟁과 맞물리면서 커다란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장 명 국
〈석탑 노동연구원 원장〉

소금상자

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 제6조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잠입하거나 반국가단체에로 탈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호,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회합'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는 두사람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만나는 것을 말하며, '통신'은 우편·전신·전화등을 통해 서로 연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을 수행,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의 구성요건중 '탈출'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그 수단은 해상을 통하든 도보에 의하든 혹은 교통기관을 이용하든 상관 없으며, 탈출을 실행한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위의 목적수행에 관해서 본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 행위를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탈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지령과 협의에 따라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고 그 처벌의 가치조차 없다.

오늘날, 특히 남북 합의서 채택에 의해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는 시점에서 더구나 점차 인적·물적으로 교류의 문이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이 조항은 현실과 더욱 유리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자연을 생각합니다
인간을 생각합니다

제1회 「건설논문상」 현상 공모

21세기의 기업미래상으로서 세계적인 다국적 건설그룹을 지향하는 삼성종합건설이 미래 건설업분야의 주역이 될 대학(원)재학생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논문상」을 제정하고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응 / 모 / 요 / 강

1. 참가대상
● 각 대학(원) 재학생과 관심있는 者

2. 응모기간
● 1992. 9. 1~9. 15

3. 응모주제(8개中 택일)
●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국토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이기주의(NIMBY) 증가의 문제점 분석과 해소방안
● 현행 건설입찰제도의 현안문제와 개선책
● 200만호 주택정책의 파급효과 분석과 향후정책 방향
● 교통부문시설 미흡에 따른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현안문제와 향후정책
● 건설재해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
● 건설시공 방법의 기계화·자동화에 대한 현안과제와 혁신방안

4. 응모요령
● 200자 원고지 80~100매 내외. (단, 학교명이 표시된 원고지는 사용금함. 워드프로세스로 작성 제출시 30~40매 내외.)

5. 시상내역
● 대 상 1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가 작 6명 : 상패 및 상금 50만원
● 기 타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6. 작품심사
● 1차 : 삼성종합건설 자체심사
● 2차 : 삼성종합건설이 위촉하는 각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입상자 발표
● 1992. 10. 10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

8. 시 상
● 1992. 10. 18(삼성종합건설 창립기념일)

9. 제출처
●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3층
삼성종합건설 기획팀(중앙우체국 사서함 8526, 우편접수 가능)

10. 기 타
●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국내외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함.
●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종합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종합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할 것.
(TEL : 727-0301~4)

삼성종합건설

SAM YANG GROUP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원하십니까?

기업마다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삼양사는 1924년 창업이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학생 여러분의 의견은 삼양사의 미래에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양

기업이미지 설문조사

성명 　 남, 여 　 대학교(원) 　 과 　 년재학
주소 　 (우 : 　 - 　) ☎

※본 설문조사는 당사의 채용, 홍보에 관한 정보활용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있는 참여와 답변을 바랍니다.

1.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 (　)
①경제적안정 ②사회적체면 ③자아실현 ④사회에 봉사 ⑤대인교류

2. 귀하의 졸업후 예정진로는? …………………… (　)
①일반기업체 ②국영기업체 ③외국인업체 ④금융계 ⑤공무원 ⑥연구기관 ⑦언론계 ⑧교육계 ⑨자유업 ⑩진학 ⑪결혼

3. 회사선택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은? …………………… (　)
①성장성 ②안정성 ③급여수준 ④회사규모 ⑤최고경영자의 면모 ⑥선배, 연고 ⑦승진속도 ⑧사풍 ⑨업종 ⑩회사의 사회공헌도

4. 기업체를 알게되는 경로중 두가지를 선택하면? ………… (　)
①기업광고 ②기사 ③제품 ④선배, 친지 ⑤기업설명회 ⑥전문잡지 ⑦TV, 라디오광고 ⑧산업시찰 ⑨산학제도 ⑩사옥위치

5. 삼양사에 대한 귀하의 이미지는? …………………… (　)
①매우 좋다 ②좋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나쁘다 ⑤매우 나쁘다

6. 삼양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 그이유는? …… (　)
①회사의 건실성 ②대외적 공신력 ③노사화합 ④지속적 성장 ⑤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⑥인화적 회사분위기 ⑦주위사람의 칭찬

7. 삼양사의 제품중 두가지를 아는대로 쓰시오.
①(　) ②(　)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응답자중 250명을 추첨하여 고급기념품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며 학업에 발전있기를 바랍니다.

〈자 르 는 선〉

■응답하신 설문지는 오려서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우편번호 110-725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삼양빌딩(주)삼양사 인사부 설문조사 담당자 앞
■접수기한 : 1992년 6월 20일

외 대 학 보

제583호 1992년 6월 2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자살특공대에서 패륜아까지…

권언유착이 빚은 화려한 정치공작

6·3투쟁에 대한 당시 제도언론의 보도양태

제도언론, 충성경쟁으로 6·3투쟁 왜곡·편파보도

6·3투쟁, 정권의 5월 위기정국 탈출책으로 이용

정치폭력과 언어폭력이 영원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는가?

전국을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겁게 달구어 낸 5월 투쟁은 6공 정권을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이같은 위기정국은 '92~93년 권력재편기의 전초전'이라 불렸던 광역의회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고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위기정국을 탈출하려는 정권의 그 어떠한 기만적인 수습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3사건은 정권에게 3년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해갈로 이용당하게 된다.

사형, 린치, 패륜, 폭도, 혁명기지… 온갖 원색적인 형용사를 총동원하여 사건전체를 매도하고 학원을 폭력배의 소굴로 매도한 다음 이에 기반하여 재야운동세력의 도덕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시나리오로 이루어졌던 정치보복의 제도적 폭력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가담자 전원구속과 일벌 백계령이 떨어져 수배전단 10만장을 살포하는 기이한 수사절차로 검거선풍을 일으키더니 연일 성명을 내어 운동권 싹쓸이론을 펼쳤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관변어용단체를 내세워 거리의 육교마다 빨갱이 타도 플랭카드로 도배를 한 것이다.

재야 운동진영과 국민대중의 결합력이 현저히 높아진 것에 불안을 느낀 정권이 가깝게는 광역의회선거에 최고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족민주운동세력과 국민대중의 분열을 시도하여 지배블럭으로 편입시키려는 수준높은 정치공작에 의해서 말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에게 준엄한 선고를 내릴 것이다.

이번 사태 뒤에는 반민주, 반체제 좌경용공세력이 있다는 정부대변인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정권의 생명을 내걸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총련 지도하에 있는 전대협의 지시에 의해서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범행 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세력의 명예를 더럽힌 돌이킬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근거 없는 독설로 더렵혀진 민족민주운동의 순결성은 그 어떤 해명이나 의도로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무덤을 만들어 내는 공안통치의 나팔수

공안정국의 양대 수레바퀴중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언론은 경쟁적으로 사건에 대한 단죄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안기부에 의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에 대한 살해의혹은 공안기구의 도덕성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기에 보도조차 하지 않던 언론이 이제는 경쟁적으로 독설의 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수많은 학생, 노동자가 맞아죽고 밟혀죽고 불덩이로 타죽어 가는데도 그 죽음의 진상과 의미를 보도하기는 커녕 '대책없는 자제'만을 요구하거나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공갈로 일관하던 언론이 자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공안통치의 민중탄압이라는 구조적 원인은 은폐되고, 부분적으로 돌출된 물리력만 가능한 최대의 범위까지 확대시키며 여기에 일정정도의 소설적 허구를 첨가하여 현상만을 침소봉대한 것이 언론의 보도양태였다.

실제로 몇몇 극우언론은 사건현장에서 투척된적도 없는 돌멩이, 깡통 등의 극적 소도구를 등장시켜 폭력을 만들어 놨으니 파편적인 현상에만 골몰하다보면 편집욕과 창작욕까지 발도하여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 내는 마력에 이끌리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질수록 구조적 통찰과는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건 당일날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간주되던 것이 간밤에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를 거치자 청천벽력으로 둔갑하고 폭력학생 매장의 메시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장면만을 집중보도한 다음, 정권의 구미에 맞는 이른바 여론주도층 명망가들의 입을 빌려 전체여론을 조작하여 변태적인 여론재판을 시도하고야 말았다.

그 결과 언론은 이유없는 무덤을 만들어 냈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어진 것이다. 목적이 수단까지 정당화 시킬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에 의한다 하더라도 수단의 거칠음에 비판이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까지 매장시켜 버렸다. 정치권에서 조차 뜨거운 감자로 취급당해 오던 정원식의 과거 경력은 잊혀지길 강요당하고 열두명의 열사를 부른 공안통치는 교묘히 은폐된 채 계란과 밀가루의 폭력만 대중의 뇌리에 새겨놓게 된 것이다.

6·3사건이 있고난 후 장학사등 교육청 노관료들의비호 아래 시국선언 여교사를 빨갱이로 매도하고 실신하도록 폭행한 수원 매탄 국민학교나 충남 태안 서남중학교 어용학부모들의 폭거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는가?

사회구조적 모순의 측면에서 관찰하고 사회변혁 관점에서 보도해야 할 자기 임무를 버리고 권력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제 살을 깎아먹는 제도언론의 속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기구나 정권위기의 관리 대행자로 전락한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안통치의 나팔수들이 불어대는 거짓과 기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이 언론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 부정한 정권과 그 몰락의 운명을 같이 할 것임은 다음의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또한 6·3사건이 정권의 정치보복적 폭력과 제도언론의 언어 폭력에 의해 눈덩이 불어나듯 확대조작된 폭력 권언유착의 합작품임을 증명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구)가 건국대 김종순교수에 의뢰하여 일반유권자 1천2백60명을 대상으로한 지방의회선거와 방송의 역할 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역의회 선거직전에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을 연일 방송한 것에 대해서는 23.4%만이 정당한 보도라고 응답한 반면 36.32%는 지나친 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35.27%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의도로 과장보도했다고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 일

〈6·3투쟁 관련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중〉

6·3투쟁이후 민민운에 대한 탄압상황

6·3이후 현정권, 민민운에 대한 대규모 검거선풍

전대협 배후 조정 운운하며 전대협 와해 노력

분신 배후 조정설에서 6·3으로 이어지는 정세변화

87년 이후 최대의 대중투쟁을 불러일으켰던 작년 5월의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투쟁'은 수많은 열사들의 분신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본교 6·3투쟁에 대한 조작속에서 서서히 수세국면을 맞게 되었다.

계란과 밀가루로 상징되는 6·3 정총리 방문 항의시위는 언론의 집중공세 속에서 '패륜아들의 난동'으로 규정되고 그 여세를 몰아 현 정권은 5월 위기정국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6·3투쟁 이후 6월 광역의회 선거에서의 민자당 압승이라는 정세의 호조건은 이른바 공안통치의 칼바람으로 불리는 민민운 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탄압을 통해 현 정권은 5월투쟁을 지도했던 대책회의 간부들의 구속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후 권력재편기에 있어 안정적인 권력창출을 노렸음은 6·3이후 민민운에 대한 탄압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사실이다. 그러니 5월 위기정국을 탈출하기 위한 정권의 책략은 6·3투쟁이전에 열사들의 잇따른 분신에 대한 '자살 특공대' '분신배후세력'등 상식이하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실제로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발표함으로써 이미 사전 각본을 준비한 상태에서 6·3은 그러한 정권의 각본을 완성(?)한 것이다.

예고된 탄압, 끝없는 구속·수배

'죽음을 선동하는 배후세력 있다'라는 서강대 박홍 총장의 발언을 대서특필한 언론공세를 필두로 현 정권은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을 강기훈씨의 유서대필에 의한 자살방조라며 전민련을 비롯한 운동진영을 비도덕적인 범죄집단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전례없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구체적인 범죄(?)날짜와 시간, 장소가 명시되지 못한 엉성한 공소장에서도 드러나듯이 도저히 상식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6·3투쟁 이후 정권과 제도언론의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로 확대, 왜곡되고 '운동권은 죽음마저도 혁명의 무기로 한다'라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탄압을 자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정권은 보복이라도 하듯이 민민운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에 착수한다.

6·3이후 민민운 진영에 대한 탄압상황을 보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 현대중공업 총 노조연합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 돌입, 5월투쟁을 빌미로 한 대책회의 간부에 대한 구속·수배, 상설연합체 논의를 이유로 한 국민연합 정책위원 5명 수배, 강기훈씨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등 그야말로 공안탄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전민련의 경우 50명이 넘는 구속·수배자를 낳았던 것만 봐도 가히 6·3투쟁의 위력(?)은 현 정권으로서는 공안통치의 면죄부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이렇듯 권력재편기의 전초전이라고 불릴만큼 투쟁의 강도와 조직적 대중들의 참여면에서 전국민적 민주항쟁의 축소판이었던 5월 투쟁은 6·3투쟁에 대한 정권과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 앞에서 다시금 5월 투쟁 이전의 공안통치로 회기하고 있었다.

학안대를 등에 업고 되살아난(?)학생운동 탄압

6·3투쟁이후 민민운 진영에 대한 탄압의 초점은 대책회의 무력화와 함께 주요하게는 학생운동에 맞춰져 있었다. 6월 3일 이후 열린 전국총학장 회의에서는 '더이상의 교권실추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학생회 간부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및 학사제적 부활 등 소위 학원안정화 대책(이하 학안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부의 강력한 지지, 지원속에서 전국 각 대학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안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대협과의 연계 차단'이라는 그것의 내용이 증명하듯이 학원을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또다른 공안통치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학안대라는 제도적 탄압 외에도 현 정권은 6·3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각종 조직사건을 터뜨리며 전대협의 와해를 노렸다. 구체적인 예로는 6월5일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사건과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그리고 전대협 정책위에 대한 구속·수배 등 학생운동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가하게 된다. 그것은 6·3투쟁 직후 전대협과의 연계 운운하며 계란과 밀가루의 해프닝을 전대협과의 계획된 연계로 확대포장하며 결국 증거가 없자 북한의 노선에 따라 전대협이 배후조정한다라는 엉뚱한 혐의로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대량 수배, 구속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6·3투쟁 이후 현정권은 광역의회 선거 압승을 타고 7, 8월 통일투쟁에 대비한 기선제압의 일환인 8·15 남북 통일 대행진 제의, 방북허용 등 통일에 대한 잇따른 공세적 자세와 함께 그 뒤로는 남측 범민련 관계자 구속등 정세의 주도권을 쥐고 본격적인 체제안정화 작업을 서두르게 된다.

현 정권의 이러한 정치쇼를 가능케 했던 6·3투쟁은 이후 구속된 학생들의 재판투쟁과 이의 진실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권의 여론조작 속에서 아직까지 그 투쟁의 정치적, 도덕적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식의 얼굴에 범벅된 밀가루와 계란은 여전히 뜨겁기만 한 작년 5월투쟁과 그 속에서 쓰러져 간 수 많은 열사들의 분노를 상징한 채 이제 그 1주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진실규명과 제적·구속자들의 복적·석방투쟁의 과제가 1주기를 맞는 전 외대인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박현숙 기자〉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인 서울캠퍼스 제25대 총학생회장 정원택군을 만나

"6·3관련 수감자들은 단식투쟁을 통해 6·3투쟁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이룰 터"

지난해 본교 교육대학원에서의 마지막 강의라는 미명으로 본교를 방문한 정원식 총리서리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항의투쟁은 '패륜아의 행위' '스승을 모독한 반인륜적 행위'등등의 왜곡 언론보도에 의해 조작되어 아직까지도 그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8명의 학생들이 제적되고 더구나 정치적 항의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이라는 굴레까지 둘러쓴 채 수배, 구속의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6·3투쟁 1주기를 맞아 6·3관련 구속자 11명은 지난 30일(토)부터 '공안내각 총사퇴와 6·3투쟁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6·3투쟁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했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6·3투쟁은 지난날 5월 투쟁의 거리에서 청년학생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훨씬 이전에 참교육을 부르짖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던 것에 대한 미약한 항의의 상징이었다. 현 법률상 이번 상고가 기각당할 것은 뻔한 일이지만 6·3투쟁을 역사앞에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6·3투쟁 이후 현정권은 학생운동의 위기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각종 조직사건을 조작하는 등 학생운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생운동은 언제나 우여곡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청년학생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정부는 사상이나 조직을 와해시켜 학생대중과 학생회간부를 분리시키는 등 사전에 전면적으로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이에 맞서 청년들은 각자 자기 투쟁의 중심뿌리를 확고히 내리고 함께 단결하여 앞으로의 큰 싸움에 대비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6·3투쟁 1주기를 맞아 벌이고 있는 무기한 단식투쟁이 가지는 의의는.

6·3투쟁 1주기를 맞아 6·3관련 수감자 총11명은 일시적으로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단식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당시 우리의 6·3투쟁은 정치적인 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순 폭력범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고문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떨쳐나 새롭게 투쟁을 세워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이러한 투쟁조차 정권에 의해 왜곡되어 평가될지라도 6·3투쟁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장래 역사가 다시 내릴 것이라 믿는다.

〈김미화 기자〉

'조국의 아들'로 당당히 서겠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펼쳐든 신문의 수배명단에서
내 이름 석 자를 발견했을 때도,
이 곳 저 곳 몸을 피해 다니며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에 눈물을 삼키면서도,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어머니의 숨죽인 울음소리에
아파오는 가슴을 짓누르면서도,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허공으로 들어 올려 져
몸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낄 때에도
조국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4천만 민중 모두가
보듬어 안아야 할 우리의 조국이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아침에 패륜아가 되고 폭도가 되면서 짊어져야 했던
'조국사랑'의 죄(?)값.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조국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젊은이들에게 감히 패륜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6·3투쟁은 바로 공안통치로
민중의 목을 옥죄며 목숨을 유지하려한,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파렴치한 정원식 공안내각에 대한
4천만 민중의 분노의 표출이었고,
정당한 응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속과 굴종을 거부하고
자랑스런 '조국의 아들'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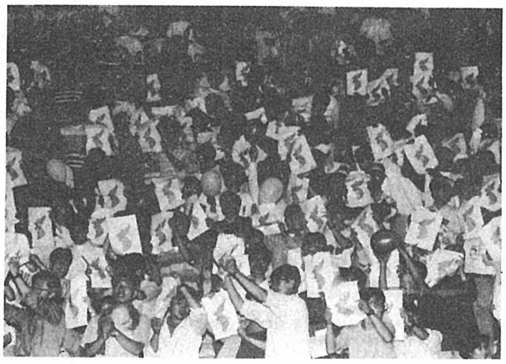
구속:11명 수배:5명 제적:8명 (92년 5월29일 현재)

전대기련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 언론의 선봉

백만학도의 함성으로 이루어진 불패의 신화

▶태재준 전대협 의장이 김영하 조통위장에게 조통위 깃발을 넘겨주고 있다

▲29일(금)에 진행된 전대협 출범식 전야제에 참가한 학우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30일(토)에 있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출범식에서 남·북 단일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전대협 출범식 기간동안 한양대 학생회관 앞마당에는 민주정부 가는길이라는 미로가 그려져 눈길을 끌었다.

제6기 전대협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6월초 전국 가두서명 통해 민주대개혁안 대중성 확보할 터"

△이번 제6기 전대협출범식이 기간의 4·5월투쟁을 총화하고 이후 하반기 투쟁으로 나아가는 장으로써의 의의가 있다고할때 4·5월 대중투쟁에 대한 평가는.

—일단 4·5월 대중투쟁은 전대협의 애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본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많은 선거들이 치뤄지게 되며 이속에서 남한 민중들은 선거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은 폭발적 대중투쟁은 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정치적 집중점이 여전히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악법철폐투쟁, 민중생존권투쟁 등 당면투쟁의 집중점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향후투쟁의 전망과 대안 제시가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둘째로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학우들은 더이상 이전의 감성적 분노나 당위적 분노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간부들의 역량이 이에 못 미치는듯 하다.

△4·5월 투쟁의 평가에 기초한 6월투쟁의 전망과 이후 대선투쟁의 방침은.

—6월투쟁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와 악법철폐투쟁을 골격으로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6월6인에서 7인까지 전국 동시다발로 가두서명을 전개할 것이며, 13일과 14일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주최의 집회를 개최한 예정이다.

대선투쟁에 있어서는 이러한 민주대개혁투쟁을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경제문제를 둘러싼 민생문제에 초점이 모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대선투쟁은 기본적으로 운동권의 현재적 수준보다는 4천만 민중의 요구로 부터 논의의 결과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이 가지는 의의는.

—이번 출범식의 목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가 기층하부단위와 허리조직의 강화에 기초한 전대협의 강화로 전총련을 건설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니다. 기간 전대협의 활동을 살펴보면 투쟁중심의 대표체로써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생활과 학문적 욕구는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6기 출범식을 이러한 삶·학문·투쟁의 공동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6기 전대협 출범식에 관한 총 평가를 한다면.

—이번 출범식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모색되었다. 특히 직접 출범식에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전대협 엽서보내기 운동등을 전개했으며,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하지만 공식행사와는 별도로 독자집회가 열리는등 통일·단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권동순 기자〉

제6기 전대협출범식 이모저모

◇··30일부터 31일 새벽녘까지 계속된 전대협 출범식 행사중 전대협 영웅상 수상식이 진행되어 8만여학우들 흐뭇한 표정.

전대협 영웅상을 수상한 이상열, 박현민 학우들은 비록 그 상의 이름과 같이 영웅처럼 삶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가장 평범한 삶을 통해 건강하고, 진실된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어 행사에 참여한 학우들, 새삼 두 학우들이 이시대의 진정한 영웅처럼 느껴진다고들 입을 모아.

◇··30일(토)에 있은 '다시 찾은 우정의 무대'라는 예비역 행사에 지난 3·24총선에서의 군부정투표를 양심선언한 이지문 중위가 출연해 많은 예비역 학우들의 박수갈채와 꽃다발 선사를 받아 이중위 즐거운 비명. 특히나 여학우들이 싸인공세를 퍼붓자 때마침 옆에 앉아있던 92학번 새내기 왈 "나도 군대가면 꼭 양심선언 하고야 말테다"라며 부러운 표정 감추지 못했다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제3기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전대협 백만학도의 염원과 7천만 민중의 통일의지를 담아 학우들이 정성스레 접은 종이학으로 한반도 지도를 예쁘게 장식한 전시물이 지나가던 학우들의 눈길을 끌어.

많은 손길이 가는 종이학을 한마리, 한마리 접으며 통일의지를 표현하는 학우들의 정성이 느껴진다며, 지나가던 학우 왈 "이러한 의지라면 통일은 됐어"

◇··전대협 출범식에 태재준(전대협 의장)군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 따뜻한 격려 말씀에 백만학도의 가슴 뭉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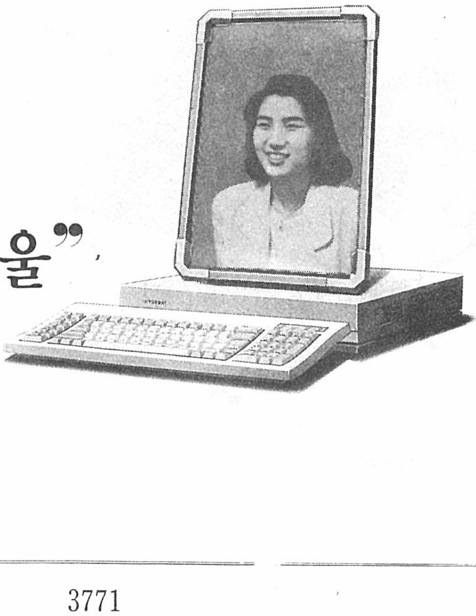
"전대협 의장으로 뽑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영광스런 자리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학생들의 순수한 통일의지를 정권이 왜곡, 탄압한 이번 '공화국기'게양사건이 가슴 아팠다고 곧이어 항상 신중하게 일을 생각하고 처리해 많은 국민들로 부터 호응받는 전대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

◇··전대협 출범식으로 인해 분주한 한양대학교 학내곳곳에서는 때아닌 '망중한'의 모습이 있어 눈길. 새벽 4시쯤 끝난 전대협 출범식 전야제 때문인지 30일(토)낮 곳곳에서 부족한 수면을 채우기 위한 취침이 이루어 졌다고.

자고 일어난 한 학우왈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잡조들과의 싸움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해 둬야 안쓰겠어예"라며 머리를 긁적.

■ 1991년 1월 입사
마케팅부 조사기획 담당
오경화

오경화氏의
"아침마다 만나는 까만 거울"



아침, 부산한 사무실에서 —

아침 인사가 오가는 활기찬 사무실 —
오늘도 나는 퍼스널컴퓨터 앞에 앉아
의자를 바짝 끌어당긴다.
전원을 넣지 않은 까만 모니터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친근한 거울,
그 위로 비치는 지난 날의 모습들…

수업료를 주는 특별한 학교 —

큰 맘 먹고 밀어넣은 입사지원서가
합격통지서로 되돌아 온 1991년 1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설레임도 잠깐,
회사는 엄청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전산교육, 토플강좌, 영어회화, AFKN청취력…
내게 있어 회사는 도리어 수업료를 주며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학교였다.

회사가 내게 준 첫번째 일 —

"소비자는 어떤 소형차를 원하는가?"
이것이 회사가 내게 던진 첫번째 질문이자 임무였다.
「소형 신차종 개발을 위한 소비자 조사」—
나와 우리팀 5명은 최선을 다했고
만 3개월만에 제본을 끝낸 결과보고서가
마침내 두툼한 한권의 책이 되어 나왔다.
그날의 가슴벅찬 기분이란!

컴퓨터의 전원을 넣으며 —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넣으며
까만 모니터에서 사라져가는 얼굴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나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범선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조타수이고
우리의 배는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우리의 차, 세계의 차 ——
HD 現代自動車

창사 25주년 HYUNDAI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②

그림돋보기-6·3투쟁 1주년을 맞

6·3관련 학생들에게 내려진 제적조치와 수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질문1. 작년 6월3일, 본교방문 중이던 정원식 국무총리에 대한 본교생의 강력한 항의시위에 대해 소식을 가장 처음 접한 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일 9시 뉴스등 TV, 라디오 방송:80명(58.82%)
일간 신문:11명(8.08%)
외대학보:3명(2.20%)
직접 목격하거나 구두로 전달:39명(28.67%)
기타:3명(2.20%)

질문2. 처음 보도를 접했을때와 비교하여 후에 6·3투쟁에 대한 견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떻게?

(주관식이므로 게재 불가)

질문3. 6·3투쟁의 재조명에서 당시의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을 외면하고 보도함으로해서 여론을 패륜적 행위 비난으로 이끌었다:70명(44.02%)
공안통치 정권에게 공세기로의 전환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65명(40.88%)
학생운동을 호도하고 과장보도와 자료제공으로 학생운동 인자들을 제적시켰다:19명(11.94%)
기타:5명(3.14%)

질문4. 6·3관련 학생들에게 내려진 제적조치와 수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3투쟁은 정당한 항의 의사 표현이므로 절대 부당한 조치이다:30명(22.05%)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었고 인륜적인 잘못이 있으므로 마땅한 조치이다:13명(9.55%)
6·3투쟁에 대한 올바른 진상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선부른 조치이다:79명(58.08%)
기타:3명(9.55%)

질문5. 5월30일(토)부터 6·3관련 구속자 8명이 일제히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들을 위해, 6·3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관식이므로 게재 불가)

설문조사 대상:본교생 1백36명
설문조사 일시:5월31일(일)

6·3투쟁에 대한 보도를 처음 접한 매체는?

6월2일(화)부터 5일(금)까지 6·3투쟁 1주년을 맞아 6·3정신 계승주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작년 6월3일 공안정국에 대한 분노의 최소한의 표출이었던 달걀과 밀가루에 대해 모든 언론의 화살을 동원하여 외대에 쏟아부었던 오도된 여론들을 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냉철히 비판하고, 이젠 6·3투쟁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할 때다. 본보에서는 외대인의 6·3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는 6·3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정치적 항의 시위 사건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한 매체는 무엇인가 물었다. 처음으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 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하 문항들의 답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었다. 답변한 이들중 방송과 신문 등의 제도언론으로부터 접한 58.82%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두번째 문항에서 후에 견해가 바뀌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보도 초기에, 정총리를 연약한 노교수로서 학생들은 무조건 몰지각한 패륜아로 선전하는 제도언론의 양태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무감각하게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였으며 후에 사건 전모를 전해 듣고는 6·3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기만적인 언론의 보도자세에 분노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두운 사회의 불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할 언론이 과연 그당시 무엇을 했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수많은 학생·노동자가 맞아 죽고 불덩이로 타죽어 갈때에도 눈하나 꿈쩍않고 '죽음의 굿판'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던 언론은 6·3정총리 항의시위에 대한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공안통치의 민중탄압이라는 구조적 원인은 교묘히 은폐하고 현상적인 측면만을 확대 포장하여 선부르게 여론재판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권 구미에 맞는 여론주도층 명명가들에 의해 조작되어가던 전체 여론은 일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점차 본질을 인식해가고 있다.

본질을 외면하고 보도함으로해서 여론을 패륜적 행위 비난으로 이끈 것은 제도언론의 교활한 술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다. 이는 세번째 문항의 응답비율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권언유착의 지경에 이른 현실은 6·3투쟁에 대한 공세로 정총리의 과거행적과 열두명의 열사를 부른 공안통치가 은폐되기를 바랐기에 6·3관련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도 지나치다. 지금까지 총20명의 구속자를 내었고 5명이 아직까지 수배중이며 8명에 대하여는 학생에겐 살인행위와도 같은 제적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네번째 문항에서 6·3투쟁의 정당성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투쟁의 방법에 있어서 '감정적인 대응이었고 인륜적인 잘못이 있으므로 마땅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자가 9.55%나 차지한 사실은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한다. 이들 6·3관련자들의 수배해제와 제적철회의 문제는 그들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 학우들이 함께 책임지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할 외대인 모두의 몫인 것이다. 혹 그간에 우리들 스스로 느슨해 있었다면 이번 6·3정신 계승주간을 기해 6·3의 현재적 의미를 재고찰해야 한다.

30일(토)부터 정원택을 비롯한 6·3구속자 8명은 일제히 단식에 들어갔다. 6·3투쟁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폭력법이라는 굴레까지 씌워져 있는 것이다. '정원식 공안내각 사퇴와 6·3투쟁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수감중에도 단식투쟁으로 모범을 보이는 이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당장에 가족 한사람, 친구 한사람에게 6·3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나가는 것, 구속된 학우에게 따뜻한 편지 한통 전하는 것, 언론의 횡포에 강제당한 여론의 올바른 조성을 위해 선전물 한장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외대인이 투쟁속에 함께 함을 확인하는 길이다. 〈이충미 기자〉

명수당(明水塘) 열정과 자기충족감

체념적 태도보다는 극적 갈등과 내면적 열정을 지니는 사람이 더욱 비옥하다

김 성 기
〈루마니아어과 교수〉

최근 모 일간지에서 기사를 읽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은 서울에서 공연되는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한한 어느 일본 여성에 관한 글이었다. 이 여성은 볼쇼이 발레단의 열렬한 펜으로서 이 발레단이 공연하는 곳은 어디든지 직접 가서 호텔에서 잠을 자며 보고 온다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며 회사를 다니면서 번 돈을 저축하여 거의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쓴다는 것이었다.

이 여성을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먹고 살것도 없는데 외국으로 발레 공연이나 보러다니는 그녀의 부르조아적, 딜레탕트적 취향을 어떤 사람은 비난할것이고, 물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한번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녀가 써버린 그 많은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기 나라나 텔레비젼에서 보면 됐지 뭐 외국까지 가서 보느냐고 비아냥거리는 합리적인 실리파 등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비난도 하고 옹호도 할 것이다.

나는 이 여성에게서 두가지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하나는 이 여성이 볼쇼이 발레단 공연에 대해 보여주는 광기어린 그 무서운 집념과 열정이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루마니아의 철학자 에밀 치오란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체념적 태도 보다는 끝없이 극적인 갈등을 겪으며 내면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비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비옥함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 무모하리만큼의 많은 열정을 가졌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쉽게 증명되어진다. 건강도 생활도 돌보지 않은 채 그림을 그리다가 마침내 자기의 귀까지 잘라버렸던 고호의 광기, 빈곤과 고독,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거의 회생불능의 육체를 딛고 자신의 예술을 완성했던 고갱의 집념, 최악의 경제, 건강 상태에서도 마적, 레퀴엠 등의 명작을 남긴 모짜르트의 짧은 생애, 그리고 눈까딱하지 않고 우스꽝스런 짓에 자기자신을 내맡기면서 이 세계의 진실과 도덕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세상인들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신념을 믿고 행동했던 돈키호테의 영웅주의의 근원도 바로 이 열정에 있다. 햄버거와 스포츠 신문, 봉숭아 학당에 길들여져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들의 삶이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이 불같은 정열 외에 이 여성이 우리에게 주는 또하나의 메세지는 자기 충족감이다.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고나서 얻어지는 그 짜릿한 감동, 충족감이 그 여자로 하여금 미친듯이 볼쇼이 발레단을 좇아다니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이 충족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상적인 즐거움, 쾌락만 좇아다니며 하루종일 놀기만 하고 빈둥거리며 말만 한다거나 자기 할일을 안하고 다른 일만 죽어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충족감이 오지 않는다. 공허함만이 올 뿐이다. 불같은 정열을 갖고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때에만 이 충족감은 얻어진다. 또한 이 충족감은 돈과 권력으로는 얻지 못하며 반드시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할 때에만 얻어진다. 멕베드는 이 사실을 몰랐다. 반란군을 토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 마녀의 예언을 믿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왕을 살해한 멕베드는 결국 원하던 왕이 되었지만 만족, 자기 충족감은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정치가, 학생,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른 대학에선

계명대학교

지난 5월26일(화) 새벽3시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학생회관에서 잠을 자던 학생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무차별한 언론공세가 가해져 학생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날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나 시발점은 대동제 행사용 플라스틱의자와 비치파라솔인 것으로 감식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옮겨붙어진 불이 쉽게 진화되지 못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것은 학생회관 건물 자체가 55년전에 지어져 벽돌과 목재를 주소재로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방만하고 안일한 태도로 학사행정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 계명대학교 당국은 화염병과 신나를 화재원인으로 규정하고, 평소 학생회관은 학교당국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치외법권지역이라며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TV등 방송매체에서 계명대 학생처장은 '학생회관이 운동권의 화염병 제조장소로 전락'운운하여 사건의 본질을 회석화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와 언론의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하여 계명대 학생들은 화재사건의 진상규명보다 학생회관의 자율적 운영을 탄압하고 학생회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고 대자보등으로 규탄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전문대

29일(금)새벽4시경 목포전문대 학생회관 4층에서 치기공학과 92학번인 천기섭군이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하였다.

천군이 남긴 '당국에 호소합니다'는 제목의 유서는 투신이 하루아침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기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당국은 대학생, 직장인, 재야단체들의 시위를 선입견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해서 진정한 민주정부로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군은 뇌출혈, 내장파열로 목포한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었다.

꿈으로 미래를 기술로 세계를
제일합섬

"바후트 다냐바드"

"바후트 다냐바드"란?
"정말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의 힌두어로
8억인의 인도가 제일합섬의 기술력에
보낸 감사와 찬탄의 인사말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 우리의 힘으로 플랜트까지
수출하는 기술의 제일합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위대한 인도의 갠지스가 웃었습니다. 인도로서는 최고수준의
폴리에스터 섬유공장을 갖게한 제일합섬의 기술력—
국내최초의 인도 합섬플랜트 수출에이어 인도네시아, 중국,
멕시코 등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선진기술을 배우던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로 수출하는 제일합섬—
섬유신소재, 폴리에스터 필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사업, 플랜트 수출에
이르기까지 인간행복을 위한 소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로
21세기 초일류기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섬유신소재
폴리에스터 필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플랜트수출

완결성·전문성 확보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히자

다섯번째 / 민중만화

민중만화 만큼이나 대중성을 의식하며 통속 상업주의와의 대결을 그 시작부터 치열하게 벌여온 장르나 매체도 드물 것이다. 물론 민중문화 전반이 그러했고, 그러하고 있지만 민중만화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여튼 만화의 재미라는 것이 폭발적인 대중적 감염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동시에 그러한 과제의 실현이 결코 쉽지 않음을 함축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할때 민중, 민주화 운동은 그 정당성을 갖게 되며 그러한 변혁운동의 구체적 발현형태인 민중만화운동 역시 당연한 의무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업주의 통속만화가 알게 모르게 지배계급에 의해 조작되어진, 제국주의의 문화적 종속에 의한 마약과도 같은 거짓된 삶의 표현이라면 민중만화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허구를 공격하고 그러한 변혁이념에 입각하여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80년대 들어와 각 지역별 노동현장등에서 밝은 전망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소위 운동권 만화와 몇몇 제도권 만화가들의 바른만화를 위한 노력들은 민중만화의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일제말기와 해방직후의 조국광복의 기쁨과 동시대 삶의 그늘진 모습들이 민중적 전형을 통해 형상화되었던 4~50년대 사실주의 만화의 명맥을 비로소 유지·계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중만화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의 삶을 담아내며 특히 정치성과 운동성을 내용으로 형식적으로는 시사만화류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작업들을 이루어 낸다. 이는 엄청난 대중침투력을 갖고 있는 직접적인 변혁운동의 무기로서 삶의 현장, 투쟁의 현장에서 선전, 선동기능을 여실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들면서 변혁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지향의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면서 민중만화운동은 양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특히 각 대학내 만화패의 탄생은 학생운동권내의 선전, 선동,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존의 대학 신문만화와 함께 민중만화의 질적·양적 확대로의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담당해 낼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기기반의 확대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 낼 것인가"하는 물음과 다양한 형식상의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보급·확산시키는가"의 범주로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80년대 말, 급격히 변하는 주변정세와 그로 인한 한국사회 변혁운동 전반의 침체와 혼란의 시점을 지나오면서 현단계 민중만화는 상대적으로 호황을 맞으며 더욱 거대해지는 통속상업주의 만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논리 내지, 다른 차원에서의 대중장악능력을 획득해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만화운동 주체들의 힘을 새로운 차원에서의 재정비로 가일층 북돋워 내야 할 때가 됐음을 의미하며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만화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불가결한 과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 민중만화의 미학적 토대를 다지는 문제 (이는 창작, 생산의 문제이다) 둘째, 만화활동가들의 조직화 문제 (이는 창작방법론상의 생산의 조직화 문제를 포함한다) 셋째, 유통구조의 현재적 통로를 개선, 활용하는 문제와 새로운 건설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80년대 만화운동의 성과라면 크게 만화매체의 대중적 탁월함의 부각, 양적 확산과 더불어 형식상 아마츄어리즘의 극복에 관한 문제제기, 운동 조직화에 대한 요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만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과제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며, 역량의 집중 배치를 통해 만화운동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켜 낼 수 있는가의 고민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우선 '재생산 구조'에 관한 것으로써 과학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이 시급하다. 이는 민중만화 작가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인력들을 확보하여 전체 민중만화의 생산대중을 넓히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개인, 혹은 공개, 비공개의 차원을 떠나 과학적인 재생산 구조의 확립은 백년, 십년 지대계로서 우리 만화운동의 체질을 새롭게 개선 시킬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방안일 것이다.

다음은 창작 생산에 관한 문제이다. 흔히, 민중만화는 주관적 의도를 섣부르게 외화시킴으로써 완성된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지적은 바로 주제, 소재의 선택, 특히 이를 형상화 시켜내는 능력에 집중적으로 귀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 조형 어법, 기량의 확보가 우선되어 질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 문제는 생산의 조직화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한 사람이 자체 완결적으로 자기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며 현재적 역량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성의 결합이 가능한 소집단, 개인등 다각적인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만 하는 당위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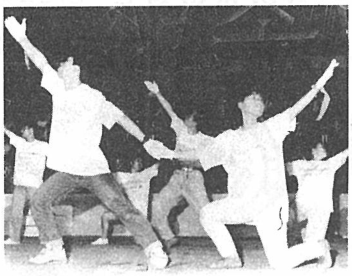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유통구조의 문제이다. 만화에 있어서 출판유통은 만화원고의 완성지점이며 대중과의 만남의 지점이기에 이 과정이 어느 집단, 누군가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80년대 후반들어 민중만화의 출판유통에 관한 관심의 대두는 만화의 대중적 파급력과 설득력 등을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만화운동 자체역량에 의해 출판, 유통을 통제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역시 출판·유통이라는 부분이 전문적 기량이 요구되어지는 독자적인 분야인 만큼 따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며 어쨋든, 문제인식의 차원을 넘어 이러한 부분에 관한 자기전망을 갖고 있는 개인, 집단등과의 공유와 구체적 능력의 확보는 만화운동이라는 전체 운동의 틀속에서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추어 내는데 필수적 요건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중만화의 생산인력 확충' '창작·생산의 조직화' 그리고 '생산물의 유통·보급'이라는 삼위일체를 이루어 내야만이 비로소 민중만화운동은 명실상부한 자기 완결성을 획득하게되며 완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채 덕 신
〈동양·태국어4〉

◇제6기 전대협 출범식 문화행사 평가

백만이 함께 일구어낸
벽·찬·감·동



'백만의 힘은 아름답다' 이번 제6기 전대협 출범식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박3일간의 빡빡한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면서도 피로한 기색하나 없이 활짝웃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조국통일' '국보법 철폐'의 의지를 담아 카드섹션을 훌륭하게 해내는 모습에서, 깊은 밤의 행사를 빛내기 위해 저마다 라이터로 불을 밝히는 진지한 모습에서 단결의 힘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8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서 제6기 전대협 출범식 문화행사는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29일 전야제, 30일 출범식및 갖가지 상설공연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조국과 청춘'을 주제로 한 29일 전야제에서는 예전에 전대협 집행부로 일했던 선배들의 축사와 여러민중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있었고, 특히 미국에 예속된 한국정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담은 연극은 학생들에게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30일 낮에 열린 '92학번 뽐내기 자랑'은 새내기들이 만화영화 주제가와 동요를 개사해 부르며 거기에 맞추어 창발적이고 발랄한 운동을 보여 주었고, 북학생들이 꾸미는 순서였던 '다시 찾은 우정의 무대'는 행사 참가층을 더 넓게 확대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다만 홍보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외에도 전국대학영상패연합이 주최한 '작은 영화제', 놀이패들의 '전국울동제'등 문예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만날수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었다.

밤에 열린 출범식 문화행사는 군중문예의 벅찬 감동을 보여주었다. 행사전에 천5백여명에 달하는 풍물패 학생들이 길놀이를 하며 드넓은 한양대 종합운동장을 온통 풍물소리로 가득메우며 행사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서는 7백여명의 노래패가 함께 한 합창, 2백여명으로 구성된 탈패의 탈춤, 2백여명의 문학패 학생들이 준비한 시낭송등의 순서가 짜임새있게 이어지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군중문예의 장엄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공연은 '참가자 전원이 하나됨을 느끼고 각단위의 문예성과물을 모아온다'는 이번 행사의 기조에 어느정도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보였는데 한양대내 거리에 '민중의 거리' '통일의 거리'등의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청년학생들의 삶과 투쟁의 내용을 담은 판화, 만화, 사진, 시화 작품들을 전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 각 건물벽마다 길게 드리워진 대형걸개그림들과, 모자이크 형식으로 새롭게 시도된 대자보들, 바닥그림등 많은 미술작품들이 선을 보여 문예패들이 정성을 기울인 흔적을 보여 주었다. 이렇듯 다양한 문예작품들은 각 지구대협별로 제작해서 한양대로 모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드높은 창작열기가 느껴졌다. 이렇듯 각종 문예작품들에서 다양한 실험적 양식이 모색되었던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92년 상반기 문예운동을 중간평가하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 출범식문화행사는 전대협 총회가 끝난 직후인 5월초부터 전국의 문예일꾼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준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활동영역 규정이 애매했던 문예패들이 노래패, 풍물패, 놀이패 등 각각의 부문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함께 부문별 전국적 연대강화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학생들 자체내에서 우러나온 요구였으며, 문예의 주체로써 우뚝서기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제6기 전대협출범식문화행사는 바로 이러한 백만청년학도의 요구를 문예를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출범식의 의의를 드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자발적인 참여·다양한 형식 시도
문예패 연합의 발전가능성 보여줘

이제 문예가 집회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단결력을 일으키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문예 자체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전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예를 통해 백만청년학도와 4천만 민중의 가슴에 민주정부수립과 조국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진영 기자〉

우리말의 쓰임새 (218) 축제(祝祭)

'축제'란 말은 일본말이다. 우리 나라의 제사는 조용하고 엄숙한 데, 일본의 제사는 시끄럽게 떠드는 행사로 지낸다. 그러므로 '제'자 앞에는 '축'자가 올 수 없다.

해마다 봄·가을이면 열리는 대학축제,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제, 중·고교에서 열리는 예술제……. 부끄러운 일이다.

'축제'란 말 대신에 '잔치'란 말을 쓰면 얼마나 좋을, 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학교와 거리에서 벌이는 행사야말로 잔치란 말에 잘 어울린다.

서울캠퍼스 동아리 〈우리말 연구회〉

민족예술의 대중적 접목을 진단한다

마지막 / 민중미술

반성과 실천으로
자본의 시각문화를 받아 치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것은 80년대 미술이 봉착한 난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답답한 공기를 갈아 넣어야 한다'는 10여년전의 언급을 매우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현재의 상황에 많은 답답함을 느낀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민중미술의 '대중화'는 일견 명확한 임무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창작의 주체를 시민대중과 근로대중에게로 확산하는 주체의 대중화와 판화운동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통을 민주화하는 수용의 대중화로 여겨졌으며,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성장은 민중미술에 대해 선전선동을 통해 더 많은 대중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90년대의 정세속에서 제도로서의 미술계는 무국적, 무계급적 포용성을 자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습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갔고, 환경으로서의 대중적 시각문화는 각종 대중매체로부터 쏟아지는 영상과 도시의 건축물들의 외관과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상품들의 디자인 자체로부터 우리의 일상적 시각체험과 공간체험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민중미술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무기력함 뿐인것 같다. 민중미술은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급미술과 대중적 시각문화의 영역 그 어디에서도 대중적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비로소 현실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의 '대중화'논리가 갖고 있던 소박함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시각문화가 갖고 있는 시각적 이데올로기의 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우리의 살과 피 속에 물질화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에 있다. 이제 민중미술은 우리의 시·지각자체에 물질화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시각적 이데올로기의 당파성을 전복시킬 수 있는 '표현의 정치성'을 띠지 않는한 대중들에게 어떤 효과는 커녕 식상함과 불쾌감 만을 줄 뿐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민중미술은 이같은 1990년대의 상황 속에서 민중미술이 그간 갖고 있던 전략과 전술에 스며있던 비현실성을 떨쳐내고 진정으로 '대중적'영향력을 갖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반성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

우선 민중미술은 미술 자체에 대한 신화, 미술이 무언가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우스꽝스러운 영웅주의를 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중들의 시각체험에 대한 영향력은 민중미술이 미술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이미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민중미술의 '대중화'라는 말 속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암묵적 공존과 분리가 갖는 물질적 힘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오만이 숨어 있었다.

둘째는 민중미술이 대중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다가갔던 또 하나의 통로, 정보로서의 민중미술이라는 측면을 전술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일이다. 사실 일반 대중에게는 민중미술 작품 하나하나를 체험하고 소유하는 것 보다 민중미술이 존재한다는 것, 그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민중미술은 자기를 자기로서 보여주는 것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만 운동적 가치와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중미술이 그간 보여 주었던 홍보능력에 대한 반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순수고급미술제도에 대한 전복적 가치와, 대중에 퍼부어지는 시각환경에 대한 반성적 가치를 결합하고 자본주의적 시각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것은 작품의 생산 뿐만 아니라 작품이 보여지는 맥락에 대한 기획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보수적 또는 상업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전략도 바로 이것을 자본주의적 당파성에 입각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중미술이 이들과의 변별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이데올로기 투쟁은 미학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1990년대에는 그러한 미학적 이데올로기 투쟁 자체가 정치적 가치를 띠지 않을 수 없다.

양 현 미
〈미술비평연구회〉

운전을 배웁시다

24년 전통·성실한 교육

특전
(1)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 교육
(2) 탁아소 무료 운영
(3)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4) 외국(이민)출국자 특별환영
(5) 실습시간 자유선택
(6) 통학버스 무료 운행
※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연수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 자동차학원

개 강 : 매주 月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633) 0036~7 3962 3963
西 部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 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3

정보처리

개강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대학생 방학 특강 (C & UNIX)
- 기간 : 7. 6~7. 31, 13 : 00~15 : 30
- C기초문법부터 프로그래밍까지, UNIX 운영 및 관리
■ 정보처리기사 1급 필기 특강
- 8월 2일 시행 정보 처리기사 1급 필기 시험 대비
- 6. 22~7. 31(6주) 16 : 00~18 : 30, 19 : 00~21 : 30
- 92년 변경된 출제기준에 따른 완벽 대비
- 각과목별 주단위 중점강의, 특강기간 중 모의고사 실시
■ 정보처리기사 2급 필기 방학특강
- 9월 20일 시행 정보처리기사 2급 필기시험 대비
- 기간 : 7. 6~8. 7(5주) 16 : 00~18 : 30
■ 16BIT PC OA과정 (각 1개월)
- OA-Ⅰ : MS-DOS, EDITOR, UTILITY, HWP
- OA-Ⅱ : dBASEⅢ⁺, LOTUS 1-2-3
■ C언어 특강 (각 1개월)
- C초급 : 기초문법 및 프로그래밍 기법
- C고급 : 다양한 응용 및 UNIX에의 접근
■ UNIX 특강 (1개월)
- SYSTEM운영·관리 및 SHELL PROGRAM작성
■ PC ASSEMBLY 특강 (1개월)
- PC 내부구조의 다양한 제어 및 주변장치 제어
■ 프로그래밍 과정 (7개월)
- 전산전문직, 유학, 전산병입대, 자격증 취득 대비
- 각 과목별 단과정 수강 가능
*기사대비 새벽반 상시 개설 (06 : 30~08 : 00)
- 각 과목별 2주씩 상세한 내용 및 문제풀이
- 과목단위로 수강 신청 가능

본원 : 735-0211~5 (종로2가 YMCA옆)
강남 : 548-2030~2 (신사동럭키증권뒤)

24年의 信頼와 權威 원장 민경현
1969 서울정보처리학원

대학생을 위한 저렴한 특별어학연수

▶기간은 7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본교는 동경의 중심부인 新宿에 위치한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인정학교로
▶일본어 능력시험 출제위원 선생님이 직접 강의
▶일본의 문화,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한 회화 중심의 수업
▶일본 현지 여행에 관한 정보 제공
(수업 시작일 45일 후에는 개인여행이 가능 - 경비 별도)
▶출국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지 대비한 가이드실시

학비, 입학금	₩ 660,000
기숙사비	₩ 420,000
항공료	₩ 200,000
그외 PICKUP비	₩ 22,200
수수료	₩ 50,000
합 계	₩ 1,352,200

SAMU
사무日本語學校
■ SAMU SCHOOL OF JAPAN (본교)
〒160 東京都 新宿區 百人町 2-26-9 三浦BLDG
TEL : 03-3227 -1541(대)
■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6의3
TEL : 312-2253 312-2254

학창시절의 다양한 경험/ 알찬 일본어 회습!!
이 중요한 것들을 올 여름 방학, 여러분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집 정원이 30명이니 빨리 전화로 상담하세요.
(토/일요일을 제외한 AM 10~PM 6시까지)

견습 기자를 찾습니다

전국의 신문·잡지·출판사·사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로 뛰십시오. 중앙편집학원이 있습니다.

75일 코스 여름 大 특강

신문·잡지·사보·출판·광고카피

모집과정 · 취재, 편집기자반 75일 코스
모집인원 · 오전, 오후, 야간 각반 20명
입학자격 · 대학재학생 및 졸업자(전공불문)
모집마감 · 현재 접수중(정원제 마감)
개 강 · 6월 24일(수요일)
* 본원 등록상담자는 기수별 취업 현황 공개
* 전화 상담을 주시면 학원 안내서를 보내 드립니다.

전 / 원 / 취 / 업 / 추 / 천

정통 편집 전문 교육을 통한 최고의 취업률97%

당연해야 할 자랑 다섯가지
1. 편집 전문서 저자 직강
2. 현장과 직결된 시청각 교육
3. 전자출판 및 워드프로세서 교육
4. 맨투맨 종합 실습시스템
5. 언론기관 최고의 취업률

문의 사항 : 364-3677~9 (서대문 경기대앞)
중앙 신문잡지 편집학원
취업보도실 393-4413

학습권 발현 위한 진보학문 선택은 학자의 기초

강의계획서로 학습자의 강의 선책 보조
특강은 현 교육문제 점검과 전형 창출에 일조

보도기획

김 병 일(유고·3)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위원장〉

Ⅰ. 강의계획서
1. 강의계획서의 의의

매학기 초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며칠동안 애를 먹어야 한다. 특히 본교와 같이 학기말에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중 교양교과목의 내용은 대학의 수준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고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관계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양교과목은 담당교수자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목명과 내용이 상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당 다뤄져야 할 내용이 명시되고,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강의계획서가 검토를 거쳐서 수강신청때 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강의변질을 일정 정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강신청시 각 과목에 대한 사전지식을 제공해줌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신청했던 수강과목의 내용이 이질화 되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는 것이나, 아예 등한시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계획서의 방향성

강의계획서의 원래 의미는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자의 한 학기 강의를 자체적으로 미리 점검, 확인하면서 강의목적과 방향을 잡아 강의의 올바른 진행을 구도하며, 또한 자신의 학문연구방법을 학습자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연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른 학습자들의 선택을 보조하기 위함을 말한다. 그러나 기존의 계획서는 미리 결정되어진 학습자들에게 무성의한 계획서를 통한 학문의 무조건적 수용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자유적 학문선택과 참여의 공간이 극소화되고 자주적 권리들이 무시되고 있다. 이렇듯 학생의 불이익의 방대해짐을 인식할 때 오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조적 자세로서 적극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강의계획서의 세부적 분석

①강의개설 의의 및 목적
해당강의의 올바른 개설 취지 서술로서 학습자들의 정확한 과목개념과 목적정립에 도움이 되고, 과목선택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②강의의 방향
올바른 학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정확한 강의의 중점과 대상을 이해하도록 하여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학습방법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③강의방법
배정된 시간안에서의 올바른 강의형태를 연구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유익하게 학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학습자의 이후 학습방법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일반적 전달이 아닌 함께 연구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④과제부과
과목이해와 심화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와 각종 보고서 형식으로서 학습자들의 학문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한다.

⑤성적평가
수학자들의 학문탐구의 정도를 이해하고, 그 정도에 맞추어 교수내용의 양·질적 높낮이를 수정할 수 있는 판단근거로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강의내용
진행되어질 강의를 단기적으로 분할, 시기에 맞는 강의의 내용을 선정함으로서 전반적 강의진행의 속도와 질·양적 발전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⑦교재 및 학습자료
과목에 대한 전문교재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이를 미리 검토하여 학습에 필요 타당한 학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목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상의 참고문헌 조사에 공동노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의계획서의 전망

강의계획서의 가장 큰 목적은 강의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학원자주화운동에 있어서 인적, 사상적 구조의 혁신과 상통한다. 교수채용에의 학생의 참여가 정당한 학생권의 발현과 인적, 사상적 구조의 혁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할 때 올바른 강의계획서에 대한 학생의 요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것이다.

강의계획서가 제대로의 역할을 하자면 우선 이를 통해 강의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더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대학당국의 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강의계획서가 강의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강의계획서와 강의평가가 함께 묶여 나온다면 학생들의 최대한의 학습권 발현과 수강신청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의식의 성장에 뒷받침이 될 것이다.

Ⅱ. 특강
1. 특강의 의의

특강은 정규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보다 진보적이고 민중지향적인 학습의 내용을 제도적인 틀로 보장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발전 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학자, 재야인사, 저명운동가, 본교 출신 인사 등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이들에게 대학강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대학교육의 주체로 나서서, 학문·사상의 자유 쟁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올바른 학문·사상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앞으로의 교과개편시 그 내용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대학교육의 방식을 창출하도록 해야 하겠다.

2. 특강개설의 원칙

먼저 특강의 개설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 및 민족민주운동의 지향점과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특강은 현 대학교육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학교육의 전형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강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 및 특강에 관련할 수 있는 모든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3. 앞으로의 전망

먼저 특강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학사일정과 강의시간이 겹치지 않는 시간대를 정하여 학생들이 대부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특강의 내용과 형식이 일반강의의 모순점을 보완, 대체하여 강의평가의 모형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강의평가제의 인식을 선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실천방안으로 용인캠퍼스 학생측 기구인 교과과정위원회는 방중 세부계획을 통해 2학기 중에 몇몇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미진하나마 92년 2학기 학원자주화의 중점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강의평가제' '강의계획서 및 특강'을 위해서 연재물을 실었다

앞으로 학내에서의 학자사업은 교과과목의 진보적인 개편을 위해서 한층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습권의 발현이며, 더 나아가 학생권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학내 제반 보수세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글 싣는 차례
1.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의 자주화
2. 본교 교육과정의 현황과 이후 개편 방향
3. 강의평가제
4. 강의계획서 작성과 특강

■학자 위한 소기구 점검 〈교수협의회〉

제주체 단결로 교수권 확보 모색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의 공공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특수한 공익사회이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의 주체는 분명 교수와 학생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다른 어느집단보다도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즉 연구와 교육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운영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책임의 이행과 함께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장 값진 것이다.

각대학 교협 연대로 대학교육 거시적 발전계획 수립해야

그러나 이러한 당위명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대학현실은 연구와 교육을 통한 교수권의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행정의 편의나 능률을 위주로 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운영보다는 교육부나 재단을 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적이고 타율적인 대학운영이 되어왔다.

그러나 87년 6월항쟁을 거쳐 사회민주화의 물결이 대학사회 전반을 뒤덮게 되었을때 비로소 대학내에서는 대학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에 대한 자발적 참여라는 공통의식이 급성장해 교수권 확보를 어느정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현재 각국에 약2백50여개대학(전문대 포함)가운데 국립종합대학을 중심으로 70여개대학에서 교수협의회를 설립하게 됐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학민주화의 인식을 토대로하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87년 7월 창립되어 본격적인 대학내 교수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본교 교수들도 교수협의회를 지난 정식발족을 하여 본교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학원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수협의회는 발족 6년째를 맞이하여 산적한 난제를 보이고 있다. 우선 본교 교수협의회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는 현재 대학운영에 대한 심의기구 또는 건의기구로 존재하여 실제적으로 사업집행 능력이 없고 다만 몇몇사항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권한과 승인권만이 형식적으로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학칙개정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어 법정기구로 교수협의회를 인정하고 민주적으로 개편해 독자적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올해 사립학교법의 개악으로 재단의 권한이 비대화 됨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위축되고 대학당국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이후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대학당국과 정부의 입장이 대학의 운영을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에 완전히 맡기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교수협의회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교수권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바로 교육관계법령의 개정에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각 대학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교수들의 단결된 힘으로 대학구성원의 몫을 찾기위해 노력할때 대학 자율화의 중추적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교를 비롯한 모든 교수협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몇가지 방향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대학내 존재하는 학생·직원등 서로 이익이나 관심방향을 달리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때 진정한 대학의 발전이 약속되며, 일부대학에서 이미 구성된 학원3주체 참여의 민주적인 학사행정기구를 본교에도 마련해 학내 제구성원들과의 협의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대학이 내포하는 문제를 대개 각대학의 고유한 문제로 국한하기 보다는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직시하고, 대학의 노력만으로 교수권의 확보는 불가능 하며 이에대해서는 모든 대학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각인해야 한다.

앞으로 교수협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상설적 모임의 형태에서 벗어나 각 대학 교수협의회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정하고 집행하는 기구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러할때에만이 본교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재봉 기자〉

크로니클

연서(戀書)

○…정×식. 어느덧 그대의 얼굴을 뵈온지도 어언 1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 TV속의 그대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시린 이빨을 다시 갈아 봅니다. 우리의 고통속에 태어난 '육삼이'는 지금도 당신이 돌아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당신의 실수로 태어난 육삼이나 우리 백만이의 애정(?)을 잊지말아 주세요!

○…허리잘린 반도땅에 의회정치가 시작된지도 44년이 넘었거늘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뭇 무소속 의원들이 떼아닌 철새행렬을 이루고 있다는데.

알고본즉, 빵빵한 민자네에서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한 돈, 명예, 권력, 민중생존권 보장 중에서 4번항만을 극구 부인하면서 무소속의원들이 대거 여당으로 가입한 것.

길 잃은 철새에게 충고하노니, 마지막 귀착지는 날 짐승의 뱃속임을 명심하시압.

○…왕산골 대동의 마당에 최신의 장비를 갖춘 차세대 놀이터가 열려, 흡산들의 눈총을 샀다고.

지난 27일까지 열린 '왕산대동제'기간 동안에 승차장 부근에서 '노래방'이 개설되어 삼일간의 성업을 한 것이 그것.

대학내에 까지 서슴없이 침투하는 일본의 상업주의를 보며 크로니클자 한가지 간청하고 싶은 바. "명수당의 처녀귀신은 뭘 먹고 사는지"

○…신정동 재개발 과정에서 정권의 알량한 보살핌(?) 아래 모기업이 민초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며 많은 인부들을 동원해줬다는데.

알고 본 즉, 계고장이 발부된 지난 4월3일 이들은 잡조와 포크레인, 철거깡패를 대거동원,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민초들의 삶의 터전을 마구 짓밟았다는 것.

반민중성으로 뭉친 그대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책은 역사의 준엄한 망치질뿐임을 각인 해야할 터.

○…배낭하나 달랑메고 세계일주하는 세상에 세계일주는 커녕 전국일주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데.

돈주고 한양행 차표사서 전대협 출범식에 맞춰 온 무등골 민초들에게 우리네 잡조들은 '못타'라는 두마디와 함께 도중에 열차를 세워 탑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헛소리만 지껄일 뿐.

전국일주도 아닌 서울여행인데도 원천봉쇄한 이유는 '전대협 파괴공작'이 확실.

봉쇄이유

비둘기칠판

(이문벌)

■한국외국어대학교
제4회 하계어학연수

아름다운 대자연의 공간속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어학연수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연수일정
연수기간:7월6일(월)~8월7일(금)
모현학사 입사기간:7월4일(토)~5일(일)
분반 테스트:회화, 듣기
Orientation 때:7월5일(일) 늦은 7시반
곳:모현학사
·접수비 안내
1차분:15만원(접수기한내 납부)
2차분:약9만원~10만원

〈대학생활 협동조합〉

지금까지 비둘기칠판을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많은 이용바랍니다.

■보도 사진전
사진을 통해 진실을 알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때:6월4일(목)−6일(토)
곳:학생회관 전시실

〈신방과 학생회〉

■각국대표 모집
이번 제16차 모의 UN총회에 참여하여 행사를 빛낼 각국대표를 모집합니다. 빨리 오세요!
·지원자격:해당언어에 일정수준의 실력을 갖춘 외대인(전공 관계없음)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모의국제 연합 사무실(서울캠퍼스 학생회관 2층, 각 학과장실, 과 학생회실)
·접수기간:6월12일(목)까지
·문의:모의 국제연합 사무실(전화:967−4458)

〈모의국제연합〉

■92대학직장예비군 기본교육 실시
○기간:1992. 8.21~8.29까지
○대상:서울캠퍼스 예비군 학생 및 교직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함

〈서울캠퍼스 예비군본부〉

(왕산골)

■식당문제 공청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식당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봅시다.
때:6월2일(화) 이른 12시
곳:학생회관 식당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대학생활협동조합〉

■찾아주세요
지난 5월28일(목) 어디에선가 저의 워커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니제품으로 건전지 뚜껑이 부서졌고요, 그 안에 영어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항가리어과 과사무실로 갖다주세요. 톡톡히 사례하겠습니다.

〈칠칠치 못한 비둘기〉

■학우여러분! 기말고사 잘보고 알찬 여름방학 되세요!

〈예쁜 비둘기〉

(동문회)

(이문)

용문
때:6월5일(금) 늦은 5시
곳:깡통
1학기 마지막 동문회니 빠짐없이 다 모이시와요.

(왕산)

영등포
때:6월 5일(금) 늦은 5시30분
곳:학생회관 식당

덕원여고
때:6월4일(목) 늦은 5시30분
곳:학생회관 식당

충청 향우회
때:6월8일(금) 늦은 5시30분
곳:학생회관 식당 가건물
우리 한번 다 모여봐유.

전대협, 출범식 통해 6월투쟁 고양

양캠, 29일 출정식 갖고 출범식 참여 결의
학생들, 민주정부수립과 전총련 건설다짐

지난 5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한양대에서는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이 개최됐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는 지난 29일(금)부터 31일(일) 까지 한양대에서 전국의 8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을 갖고 민주대연합 건설을 통한 민주정부수립과 전총련 건설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9면)

전대협은 출범선언을 통해 "모든 민주세력과 4천만 민중은 단결된 힘을 모아 노태우·민자당 정권의 재집권음모를 분쇄하고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와함께 "90년 이후 줄기차게 논의했던 전총련 건설을 당면한 전대협의 총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대협은 당면투쟁 목표로써 독재권력 분쇄와 민주대개혁 쟁취 투쟁을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지방자치제 실시투쟁과 국가보안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반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9일(금) 출범식 사수 결의대회 및 전야제를 시작으로 한 이번 출범식과 사전행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대협 소속 8만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전대협의 막대한 조직력을 보여주었다.

출범식 전야제에 이어 30일(토) 오후4시 부터는 '제3기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하 조통위)출범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조통위위원장 김영하(중앙대 총학생회장)군은 "전대협이 천명한 통일방안을 대중적으로 선포하여, 연방제통일방안 확정투쟁과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출범식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열린 본행사인 '제6기 전대협 출범식'은 △5기 이임사 △6기 경과보고 △각지구대협 소개 △92년 전대협 사업공유 순서로 이어졌다.

이자리에서 전대협의장 태재준(서울대 총학생회장)군은 출범사를 통해 "전대협이 투쟁의 선봉이 되어 4천만 민중의 한결같은 염원인 민주정부수립과 자주·민주·통일의 새시대를 창출하자"라며 이후 반노태우 투쟁과 민주정부수립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후 실시된 전대협 영웅상 시상식에는 군부정투표 진상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 등 4명에 대한 수상식이 각각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도 선보였다.

이와함께 출범식 마지막 날인 31일(일) 오후2시경에는 '전대협과 함께하는 서울시민 한마당 출정식'이 열렸으며 집회후 이들 학생들은 대학로 까지의 평화행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시내곳곳에서 '지자제 실시와 악법철폐'를 요구하며 규탄시위를 가졌다.

한편 전대협내 사회주의진영인 민중민주계열의 고려대 등 전국 30개 대학총학생회장단은 30일(토) 오후3시 한양대 소운동장에서 2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대협의 민주적강화와 올바른 대선방침 수립 촉구를 위한 전국청년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중권력 쟁취와 대선을 대비한 진보적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등을 다짐했다.

상경대 노래패 맥박
26일 정기공연 가져

본교 서울캠퍼스 상경대 노래패 '맥박'은 지난 26일(화) 오후5시 30분 본교 노천극장에서 '나의 삶을 찾아서'란 제목으로 '제2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지난 31일(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결성 3돌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금성무대에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가졌다.

전교조의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2만여명의 교사·학생들이 함께 동참했으며, 본대회에서 전교조는 교육대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벌여온 교사서명운동등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국회·정부·한국교총 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강인숙 본보편집장〉

서울, 6·3 1주기 행사 일정 발표
마라톤대회·FBS가요제등 행사 진행

서울캠퍼스는 오늘(2일)부터 5일(금)까지의 '6·3투쟁 계승 및 외대거듭나기 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30일(토) 공식기념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행사는 지난해 발생했던 6·3정총리 항의시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총학생회장사태 및 직원노동조합의 파업돌입 등 그동안 본교 구성원들 사이에 만연했던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날짜별 주요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2일, '여는날'—개막주간설명 및 서울캠퍼스 교육방송국(FBS)주최 제13회 'FBS가요제'(오후6시 노천극장) △3일(수) '6·3투쟁 계승의 날'—집회형식의 '6·3제'개최 (6·3구속 학생들의 투쟁보고) △4일(목) '외대가족 하나되는 날'—마라톤경기및 교수와 함께하는 족구·노래대회 개최 △5일(금) '총화의 날'—통일노래한마당과 폐막식(노천극장)

이와함께 설치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주점은 후원금 마련과 6·3투쟁 홍보사업을 중심으로 3일부터 5일까지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양축전과 관련 구속된
본교 윤원석군 28일 출소

용인캠퍼스 89년도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윤원석(사회·경제86학번)군이 2년 6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28일(목)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윤군은 지난 89년 당시 평양축전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0월에 연행,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용인 FBS 가요제
김수민 최우수상 차지

용임캠퍼스 교육방송국(FBS)이 주최하는 '제8회 FBS가요제' 행사가 지난 28일(목) 자연대 대강당에서 열려, 본선에 오른 10개 단체들의 열띤 경연을 가졌다.

이날 가요제에서는 김수민(동학·마인어3)외 1명의 '나의 사랑 그대는'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이중하(서학·영어2)외 2명의 '너를 위하여', 장려상에는 오아시스(동학·아랍어과 중창단)의 '나의도시'와 황상필(인문·언어4)외 1명의 '막과 막사이'가 각각 수상했다.

세민전 행사 내일 첫개막
28일 결의대회 갖고 성공다짐

'인류평화를 위하여, '92 세계민속예술축전'(이하 세민전) 행사가 내일(3일)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의 첫 행사를 앞두고 지난 28일(목)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세민전에 참가하는 출연진 및 진행요원들이 모여 △성공개최 결의 △행사기념품 증정 △일정 안내의 시간을 가졌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번 세민전 행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일 1회, 4일 2회, 5일 1회 공연단체~러시아어과, 영어과, 인도어과, 유고어과, 일본어과, 서반아어과, 이태리어과, 아랍어과, 체코어과, 중국어과, 한국(비언어계열 연합풍물패)

△3일 2회, 4일 1회, 5일 2회 공연단체~독일어과, 불어과, 마—인어과, 항가리어과, 루마니아어과, 아프리카어과, 태국어과, 폴란드어과, 포르투갈어과, 한국(1회 공연은 오후2시, 2회 공연은 오후6시30분 예정)

용인, 학자추·대생협
식당문제 공청회 열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와 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는 학생회관 식당의 학생직영과 관련, 오늘(2일) 2시 학생회관 식당에서 '식당문제 공청회'를 열고,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학생들과의 토론시간을 갖는다.

본교생 허정숙양
영어웅변대회 대상수상

지난 22일(금) 중앙대 영자신문사 창간 35주년 기념 '제25회 전국 영어웅변대회'에서 본교 서울캠퍼스 허정숙(독어4)양이 대학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사람

"6·3투쟁은 정원식 공안내각에 대한 외대인들의 정당한, 최소한의 항의시위였습니다"

6·3투쟁 1주기를 앞두고 작년 9월11일, '6·3투쟁의 정당성과 구속·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교육부 항의방문을 벌이던 중 검거, 8개월동안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28일(화) 출소한 백경선(상경·경제4·제적)군의 말이다.

이번 '6·3투쟁 1주기'는 그동안 제도언론의 왜곡속에서 진실이 은폐·조작됐던 6·3의 진실을 규명하는 장으로써, 6·3을 보는 그릇된 관점을 극복하고 향후 올바른 투쟁의 전망을 내오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6·3 항의시위 이후 저에겐 수배가 떨어졌고 저는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여론조작속에서 잡히지 않는 것이 6·3의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배생활을 하면서 집에 갈 수 없어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집걱

정은 말고 몸조심하라고 하실때는 그만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군요."라며 또한 당시 지방에 머물때 각 학과에서 "6·3투쟁은 정당하다며 여비를 쥐어준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말한다.

아직도 6·3투쟁과 관련하여 일부학생들은 '정권이 수세위기를 공세 정국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게한 것은 과학적이

"6·3사건은 스승에 대한 반인륜적 패륜이 아니라 정원식 공안내각에 대한 항의표시였습니다"

〈6·3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로 출소한 백경선(상경·경제4·제적)군을 만나〉

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경선군은 "5월말, 6월초로 접어들면서 보여진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일정정도 투쟁의 수위가 가라앉았던 것은 5월 정국내내 보여졌던 투쟁의 명확한 지도력 부재와 명확한 대안없이 보여진 투쟁양상 등이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6·3은 당시 민주세력과 적들의 힘의 역관계속에서 판단할 때 명확한 평가가 나오리라 봅니다"라며 탄압의 빌미를 거론하는 것은 투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6·3투쟁은 정권의 여론 조작으로 극심한 왜곡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1주기를 맞아 백만 청년학도는 그날의 항의시위가 정당했음을 다시한번 자인해야 할 때이다. 이에대해 백경선군은 "수배동지들이 남아있는 한 6·3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6·3은 스승에 대한 반인륜적 패륜이 아니라 당시 공안정국에 대한 항의였으며, 김귀정 열사에 대한 애정이었다"고 다시 한번 정당성을 강조하며 말을 맺는다.

〈류상준 기자〉

교직원 동정

◎사범대 교수 주최 '92 학년도 교육실습학교 선생님 초청간담회'개최

서울캠퍼스 사범대는 이강혁 총장과 이상준 학장의 참석하에 올해 교생실습을 도와준 각 학교의 선생님들을 초청, 지난 22일(금) 쉐라톤워커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역대학원 최정화교수, 25일 프랑스정부로부터 '교육공로훈장 기사장'수여

본교 통역대학원 최정화(한불어 통역)교수는 지난 25일(월) 프랑스정부로 부터 프랑스 국내외의 교육계 인사에게 주어지는 최고상인 '교육공로훈장 기사장'을 받았다.

학과움직임

◎서울 불어과, 28일 기금마련 일일호프 개최

서울캠퍼스 불어과에서는 지난 28일(목) 구속·수배자기금 마련을 위해 보스턴호프에서 일일호프를 열었다.

◎용인 아프리카어과, 29일 학생회장 보궐선거 실시

용인캠퍼스 아프리카어과는 지난 29일(금) 학생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단독 출마한 송현송(90학번)군을 신임 과회장으로 선출했다.

◎용인 아랍어과 노래모임 '오아시스', 1일 노래공연 가져

용인캠퍼스 아랍어과는 어제(1일) 교양학관 401호에서 정기노래공연을 가졌다.

동아리 소식

◎서울 민속악반 얼소리, 오는 5일 '제7회 정기연주회' 개최

서울캠퍼스 민속악반 '얼소리'는 오는 5일(금) 오후6시 대학원소강당(6105)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용인 농구반, PHOEBUS, 27일까지 농구대회 개최

용인캠퍼스 농구반 'PHOEBUS'는 지난 11일(월) 부터 27일(수)까지 학생회관앞 농구장에서 '부총장배 농구대회'를 가졌다.

◎용인 만화모임 '그림사랑', 오는 5일까지 전시회 가질 예정

용인캠퍼스 만화모임 '그림사랑'은 어제(1일) 부터 오는 5일(금) 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제12회 전국대학생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학력경시대회 참가요강

1. 목적
①대학생에게 학구의욕을 고취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유도함으로써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대학생의 학력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③경쟁적 학술활동을 통하여 대학인의 안목을 넓히고 대학자체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④외국어에 숙달된 자질 높은 인재발굴과 아울러 대학내의 올바른 외국어 교육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경시과목 및 내용
①경시과목: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택1)
②경시내용:수필—창의력,표현력의 측정평가
번역—외국어의 국문번역, 국문의 외국어 번역능력 측정평가
회화—외국어 청취력, 구사력의 측정평가
③배점비율:수필—30% 번역—30% 회화—40%(청취력—20%, 구사력—20%)

3. 경시방법
①참가학생은 응시과목의 3분야(수필, 번역, 회화)에 걸쳐 모두 평가받아야 함.
②수필은 주어진 제목에 따라 해당 외국어로 창작하여야 함(제한시간60분)
③번역은 외국어를 국문으로,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함(제한시간60분)
④회화는 1차(청취력), 2차(구사력)로 나누어 평가하며, 2차는 심사위원(한국인, 외국인 혼합편성)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심사함.

4. 출제 및 심사위원 구성
출제및 심사위원은 전국 대학(교)해당 외국어학과의 저명한 교수 및 외국인으로 하며, 지방과 서울의 균형을 감안하여 구성함.

5. 참가자격
①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소속대학(교)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인정함.
②본 경시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응시자는 과거와 동일한 상 또는 하위급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함.
③경시과목과 상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이상 체재하고 귀국한 학생은 참가불가.

6. 대회일시
1992년 6월 23일(화)오전9시~오후5시

7. 대회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8. 시상 및 발표
①심사발표:㈎일시:1992년 7월 3일(금)오후2시
㈏장소: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 게시판
㈐각 대학(교)으로 개별 통지
②시상내용:최우수상1명(각과목별):교 육 부 장관상—상장 및 부상 1,000,000원
우 수 상 2명(각과목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상장 및 부상 500,000원
장 려 상 5명(각과목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상장 및 부상 200,000원
③시상장소:한국외국어대학교
④시상일시:1992년 7월 9일(목)오전 11시

9. 특별부상
①과목별 최우수자 각 1명과 분야별 우수상 입상자중 2명을 성적순위에 따라 교육부 주관의 국비 단기해외연수
㈎기 간:동·하계 방학중 11일내외
㈏연수국:아주 또는 구주지역
②과목별 우수자 2인중 수석우수자 각 1명에게는 대한항공(KAL)이 제공하는 국제여객기 왕복 탑승권을 특별 부상으로 수여함.(교육부 주관의 국비 단기 해외연수 선발과목은 차점자 수여)
㈎영어—뉴욕 ㈏불어—파리 ㈐독어—프랑크푸르트 ㈑일어—동경 ㈒중국어—홍콩

10. 대회참가 신청요령
①구비서류:참가신청서및 총(학)장 추천서1통(소정양식)사진2매(반명함판)
②접 수 처: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학과
우편번호:130—791
주 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 화:(02)965—7047, 961—4083, FAX(02)960—7898
③접수기간:1992년 6월 5일(금)~6월 15일(월)오후5시
④접수방법:○학교별 단위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6월15일(월)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필히 도착하여야 함.
○서울·경기지역은 가급적 직접 접수하기 바람.
⑤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대학(교)학생처(과), 해당 학과장실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교육연구소 또는 사범대학 교학과로 문의 할것.

주최:한국외국어대학교
후원:교 육 부
협찬:대한항공(KAL)

'92년 재학생과정 모집요항

1.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과 정	인 원
영 어	초 급 · 중 급	각 반 25명 내외
일 본 어	초 급 · 중 급	

※영 어 초·중급: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영어회화 능력의 배양
※일본어 초 급:기본문법 및 강독의 철저학습에 중점을 둠
중 급:문장력과 회화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둠

2. 교육기간:1992. 8. 3(월)—10. 9(금) (10주)
3. 교육시간:주 4일(월, 화, 목, 금요일)
1일 2시간(19:30—21:30)
4. 지원자격:본교 학부 재학생
5. 선발방법:등록순 마감
6. 수 강 료:120,000원 일시납
7. 등록기간 및 장소:1992. 6. 15(금)부터 교학과
8. 기 타
1)본 교육은 학부 재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년 4회 실시함.
2)교재는 등록마감후 우편안내에 따라 개별 구입하여야 함.
3)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개설되지 않을수도 있음.
※문의처: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61—4174, 4175

1992년 6월

외국어연수원

제583호 1992년 6월 2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수/기

창살 속 새벽빛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 날은 무척 추웠다. 며칠 전 닫아 두었던 구치소의 낡은 비닐창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국보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첫째날.

처음 해보는 단식이었다. 희뿌옇게 떠오는 아침빛을 보며 닥쳐오는 감정은 두려움…. '주위에 동지도 없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사기방에 집어 넣어진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배고픔과 깊어가는 가을의 한기가 평소보다 몇시간 일찍 잠을 쫓아냈다.

벌써 이곳 구치소에 들어온지 한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딜까?' 하는 놀라움으로 주위를 한참 동안 둘러보곤 한다. '구치소 벽을 넘으면 저기 또다른 사동에서 동지들이 새벽 속쓰림을 참으며 단식을 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전국 곳곳 교도소 창살 안에서 저 새벽빛을 보며 결의를 곱씹고 있으리라.'

> 구치소 벽을 넘으면 저기 또다른 사동에서 동지들이 새벽 속쓰림을 참으며 단식을 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전국곳곳 교도소 창살안에서 저 새벽빛을 보며 결의를 곱씹고 있으리라.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아침빛이었다. 그래. 나는 '국가보안법이 왜 나쁜가'는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가 절박한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만큼 구치소 밖의 생활속에서 옥죄어 왔던 국가보안법의 사슬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투쟁하지 않고는 신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낀 것이다.

준비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하여 왜 국보법이 나쁜 지 창살밖 옆방에 있는 모든 수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녁 8시30분. 하루생활을 정리하고 잠을 잘 시간이다.

구치소 곳곳에서 국보법철폐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 벌써 다른 사동에서는 단식농성을 알리는 양심수들의 목소리가 여러 수인들의 복창하는 구호소리와 함께 쩌렁쩌렁 울린다. 나는 감방 창틀에다 대고 모든 사동에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외쳤다.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옆사동에서 외치는 용희형의 목소리가 간간이 들린다. 용희형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도 힘차게 외쳤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5일째 되는 날부터 걷기가 어려워졌다. 만7일 동안의 단식투쟁이었다. '혹시나 죽는 것이 아닌가'하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들었다.

투쟁을 한 사람만이 그 싸움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투쟁을 한 사람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든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단식은 구치소의 하루하루가 생존이 아닌 생활로 느껴지게 한 첫번째 싸움이었다. '보이지 않는 창살'안에서 생활하다가 보이는 창살 속으로 들어온지 한달만에 투쟁을 해야만이 자신을 억압하는 실체를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은 변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이제 차츰 구치소 내에서 내가 할 일들이 잡혀 나가기 시작했다. 꼬박꼬박 밖에 있는 친구들·선배님·후배들에게 편지도 쓰고, 책도 정리를 하면서 한권 두권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저녁식사 후에 윷놀이하는 데도 빠지지 않고….

10월말 정도 되었을 때였다.

점심식사 후에 20분동안 운동시간이 있었다. 늘 하던 버릇대로 교도관 앞에서 버젓이 옆사동에 있는 용희형을 불렀다. 용희형이 다른 날과는 달리 심각한 것 같았다. "원택이 형하고 경하형이 시월제를 마치고 학교에서 나오다가 잡혔단다" 이 말을 듣고 한참동안이나 귀를 의심했다. 내가 잡혀온 것도 원택이형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끝내 잡히고 말다니…. 아무 얘기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들어왔다. 뒤에서 용희형의 힘내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 "원택이 형하고 경하형이 시월제를 마치고 학교에서 나오다가 잡혔단다" 이말을 듣고 한참동안이나 귀를 의심했다. 내가 잡혀온것도 원택이 형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끝내 잡히고 말다니…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런 방법도 없었고 안타깝기만 했다. 총·부학생회장님을 빼앗겨버린 우리 학우들의 심정은 어떨까? 수배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찬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형들이었다. 밤새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새벽이 다되어 잠이 들었다.

기상나팔 소리가 들렸다. 오전에 운동이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용희형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아마 편지쓰러 복도에 나간 모양이었다. 용희형방에서 용희형을 부르는 소리가 나더니 용희형이 창밖으로 얼굴을 보였다.

용희형이 4동에 있는 경선이형이 단식을 한다고 한다. 나는 대뜸 단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다. 그때 성동구치소에는 10명이 넘는 6·3구속자가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6·3을 잘 모르고 있었다. 양심수들조차도 6·3에 대한 패배의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우리만 단식하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지 않겠는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결국은 6·3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결심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을 시작하던 날,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가지를 물었다. '왜 단식을 하느냐'에서부터 '왜 6·3사건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6·3사건은 학생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동안 신념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6·3의 진실을 차곡차곡 가슴속에 채워 나갔다. 2~3일이 지나면서 저녁 단식농성방송은 점차 제소자들의 목소리로 힘있게 되었고, 차츰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고 구치소 문을 나오던 12월2일.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갈 책을 정리하고, 주위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구치소 교무과에서 빌린 책 몇권을 반납하러 면회장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야윈 청년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마 면회를 끝내고 오는 것이리라.

자세히 봤더니 원택이형이었다. 같이 가던 교도관을 뿌리치고 달려갔다. 8월26일날 마지막 보았으니 석달만에 보는 얼굴이다. 깡말라서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오랫만에 잡아본 원택이형 손엔 힘이 있었다. 그리고 따뜻했다.

이제 나간다고 내가 얘기했을 때 "잘됐구나"하면서 나보다 기뻐하셨다. 마른버짐이 핀 까칠한 얼굴이 무척 밝았다. 억지로 웃는 듯한 그 특유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형보다 먼저 나가요. 날씨가 추운데 몸건강하세요." 교도관의 만류로 아쉬워 하면서 헤어진 뒤, 어스름한 저녁에 구치소 문을 나섰다. 많은 선배와 동료·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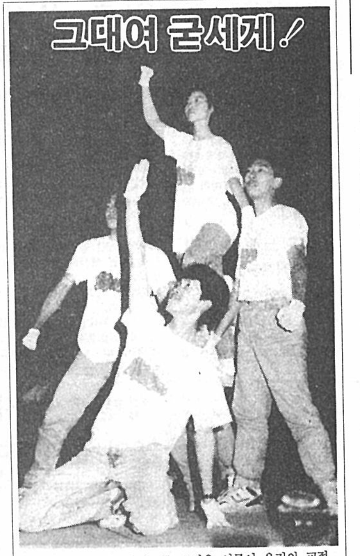
> 지금도 단식할때의 쓰라림을, 그러나 무언가 넘쳐오르던 새벽빛을 기억한다. 그리고 또한 묻는다
> '정말 투쟁은 아름다운가? 나는 투쟁하고 있는가?'

'나는 강해졌는가?' 자문해 보았다.

지금도 단식할 때의 쓰라림을, 그러나 무언가 넘쳐오르던 새벽빛을 기억한다. 그리고 또한 묻는다.

'정말 투쟁은 아름다운가? 나는 투쟁하고 있는가?'

홍 영 철
〈동양·중국어4〉



어느덧 햇살이 따갑도록 뜨거운 여름이 우리의 교정에도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내일이면 6·3투쟁이 1주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지내던 우리의 벗들이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아래서, 또는 그 어디에선가 수배 생활을 하며 우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보 문화면에서는 그리움과 외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벗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그대여, 굳세게!'라는 주제하에 두편의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운 벗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지금의 우리생활을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만날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문화부〉

수/필

그리움 담긴 사랑의 말을 전하며

유난히 어두운 내 방, 포근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뭉기적거리다 일어나 보면, 아침은 벌써 사라지고 청명한 5월의 햇살이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한 친구를 법정에서 대했던 당시의 내 느낌은.

포승에 묶인 채 하얀 수의 만큼이나 눈부신 함박 웃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그 친구.

> '치열'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만큼이나 치열하게 살고자 했던 그는 강요하지 않는 대신, 성실한 모습속에 담긴 믿음으로 사람을 강제했습니다.

6월3일, 종간호 조판을 앞두고 분주한 그 날도 전대협 출범식에 다녀 오느라 지친 몸을 채 추스리지도 못하고 원고 정리에, 기자들을 재촉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정원식이 학교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 왔고, 그는 볼펜 한자루와 자그마한 원고 뭉치를 손에 쥐고 기자실 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조판을 끝낸 다음 날 새벽, 간밤의 일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한 채 기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그렇게 우리들 곁을 떠났습니다.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학교에서 제적이 된 그 친구의 모습을 그후로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것이 못내 아쉬운 기자들의 가슴엔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리움이 싹터 가고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작지만 다부진 체구를 가졌던 그 친구는 남쪽의 작은 섬에서 법관이 될 것이라는 부모님의 희망을 가슴 깊숙히 간직하고, 큰 도시에 대한 부푼 가슴으로 대학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 팔아 등록금 마련했던 학생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모님들의 고생이 서려있는 그 김을 팔던 모습이 너무 천연덕스러웠기 때문일까요. 그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도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았을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을 팔던 그 당시도 그랬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도 가난이라는 굴레가 씌운 그늘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같이 지내던 선배가 자취를 그만두고 누나 집으로 들어 가면서 있을 곳이 없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는 짐을 꾸려 학보사에 딸린 일명 '따봉 여관'이라 불리는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방들이를 해달라고 하도 졸라, 맥주 몇병에 오징어를 사다가 고사도 지내고, 동기들 끼리 모여 조촐하게 방들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와 돌이켜 보니, 그 때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혼자 잠자리에 들면서 어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서글픈 생각을 추스렸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에겐 카리스마적이라는 소리도 듣고, 동기들에겐 자아가 너무 강해 때론 적응하기 힘든 사람이었던 친구에겐 쉽게 느낄 수 없는 깊은 정이 있었습니다.

'치열'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던 만큼이나 치열하게 살고자 했던 그는 강요하지 않는 대신, 성실한 모습 속에 담긴 믿음으로 사람을 강제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안겨준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중한 힘이었고, 쉽게 가시지 않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 믿음이 전해주는 힘은 그를 북돋아주기 위해 갔던 법정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로 웃음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강한 힘으로,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던 그는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가 투사를 만든다고들 하죠. 그 친구에겐 역시 '투사'라는 말보다 '언론전사'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6월3일 취재를 위해 들고 나섰던 원고뭉치와 볼펜 한자루는 징역 2년으로 돌아왔고, 결국 이 시대는 그를 언론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곁에 한없이 잡아두고만 싶었던 그 친구는 우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양심수가 아닌 폭력범이라는 있을 수도 없는 굴레를 쓰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날아 오는 그의 편지에는 부탁의 말보다 후배 기자들을 다독거려 주고, 해야 할 일을 챙겨주는 내용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는 더욱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바로 곁에 있는 것 같이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느끼게 합니다.

학생 기자라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를 거부했던, 그래서 '치열'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그에게 이젠 당부의 말은 하지 않으렵니다. 대신 친구를 향한 그리운 마음 만큼, 오늘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을 준비하렵니다.

> 그 친구에게 '투사'라는 말보다 '언론전사'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6월3일 취재를 위해 들고나섰던 원고뭉치와 볼펜 한자루는 징역2년으로 돌아왔고, 결국 이시대는 그를 언론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글을 쓰는 나를 질책할지도 모르지만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과 자꾸만 나약해지려는 제 모습이 답답해 그 친구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바깥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며, 아직은 보여주지 못할 사랑을 키워가는 그 친구에게 그리움 담긴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부지런히 살겠다는 말도요. 그리고 늘 밝고 건강한 모습 간직하길 바랍니다.

김 유 경
〈동양·이란어4〉

6월의 문화달력

우리의 위대함을 외친다

우리의 위대함은
9살짜리 꼬마가 만개의 단어를 외우는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타인의 배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고 하늘 높이 승리를 외치는 정복에
있지도 않다.

우리의 위대함은
산의 숨결을 느끼고, 강물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이상을
갖는데 있다.

태양의 정열이 온 세상을 빛내는 6월
주변의 모든 자연을 몸 안으로 빨아들이자!
그 속에서 우리의 위대함을 외쳐보자!

캠퍼스의 6월은 자연의 정수를 모아 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행사를 알리기 위해 現代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본란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달 25일까지 現代그룹 文化室(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3347)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現代

연 연극 무 무용 전 전시 행 행사 음 음악 영 영화 기 기타